

우리네 아이들

보육활동의 길잡이

2002 05/06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우) 100-391
☎ 02)2275-8505
FAX : 2275-8506
e-mail: kdta@chollan.net
홈페이지: www.kdta.or.kr

어린이 권리선언문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이든지, 그리고 피부색이 어둡든간에, 남자인지 여자인지간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인지 아닌지, 부유하건 가난하건간에 상관없이 우리 어린이 모두는 이 선언문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진다.

1. 어린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권리가 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어린이마다 지니는 개성이 존중되고, 특이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문제아로 취급받지 않으며, 다양한 발달과정과 그 속도의 차이가 인정되며, 어른들과는 다른 어린이만의 독특한 사고체계를 인정받는다.

1. 어린이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어린이가 어른들의 칭찬과 꾸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해나가고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책임지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과, 어린이의 의사와 어른의 의사와 마찬가지로 존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어린이는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가 마음껏 노는 것은, 다양하고 자극이 많으며 위험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고, 어른이 가르쳐주는 말, 행동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대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닐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의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안정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안전된 보호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호되는 물리적인 환경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사회로부터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할당 부모, 사회로부터 적극적으로 따뜻한 애정을 느끼고 도움을 받을 권리, 폭력적인 경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친구를 사귀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격려받고 피부색이 다른 친구, 몸이 불편한 친구 등 다양한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어린이는 어른과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동반자로서 관계를 가지며 신뢰와 애착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신의 생리적 욕구를 편안하게 충족시킬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즐거운 식사시간을 가질 권리와 균형있고 공해 없는 음식을 먹을 권리, 충분한 휴식을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적절한 휴식공간과 어른의 도움없이 어린이 스스로 배설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질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연 속에서 자라날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햇빛과 바람을 맞고 흙놀이를 할 권리, 옷버릴 걱정없이 마음껏 뛰어놀 권리가 있다.



우리네 아이들

창간 87호 2002년 05/06월호

창간호 1992년 5월 25일/

편집장 한국보육교사협회/편집인 이윤경/

편집인 이경녀, 김희정/편집날 2002년 5월 15일

2	권두언	놀이는 어린이의 권리	윤선영
4	보육정책 1	지방선거, 보육의 목소리를 높이자!	이윤경
8	보육정책 2	외국의 보육정책 시리즈 2-호주 편	보육정책위
17	특집	보육교사, 당신의 자라는 참 곱고 아름답습니다.	편집부
27	연장교육 1	해야해야 어린이집의 보육일기	김순아
30	연장교육 2	인터넷을 활용한 현장 교육사례 주제: 통일	박양지
48	연장교육 3	제7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행사기획팀	
52	연장소식 1	보육예산 두 배 늘리기와 보육교사 처우개선 서명전에...	보육교사
53	연장소식 2	내 이름 석자를 아름답게 남기는 방법	이미정
54	연장소식 3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보육교사 여러분을 보며 마음으로부터 성원과 지지를 보냅니다	주소라
55	연장소식 4	"보육교사들의 작업방 이겨내는 방법 있다"	김수연
57	인물탐방기	부산지부의 김정애 선생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고영미
60	아이들의 세상만들기	행복한 우리 어린이집의 아이들	편집부
61	영아들과의 하루	잔인한 4월의 산나는 추억	이정미
63	육아일기	어린이날 즈음하여	전경숙
65	좋은 그림책소개	동벼락	이진실
67	세상읽기	한반도에 불고있는 노풍! 지역풍을 누를 수 있을 것인가?	이연희
68	사이버정보망	보육교사들의 카페에 놀러 오세요	편집부
69	알람		편집부
72	보육계풍망		편집부
74	소식과 소식		편집부
81	편집부에서		편집부

놀이는 어린이의 권리

윤선영 · 건양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 한국보육교사회 전문위원

‘놀이는 어린이 그 자체이다.’ 어린이가 놀이를 하지 못한다면 건강하지 않거나 억압 또는 피해를 받고 있는 중이다.

어린이의 놀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 어린이의 놀이에는 어린이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이 담겨있다.
- 어린이의 놀이에 자신이 경험한 바가 재연된다.
- 어린이는 놀이를 통해 이미 배운 능력을 실험하고, 새로운 능력을 시도하며 배운다.
- 그래서 놀이는 어린이의 발달상태를 잘 보여준다.
- 어린이의 놀이는 즉흥적이고 변화가 잦은 놀이에서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놀이로 발달한다.
- 어린이의 놀이는 신체적인 움직임에서부터 상상으로, 상상으로부터 사고, 기술, 인내, 의지가 담긴 놀이로 발달한다.
- 놀이에 대한 어린이의 만족감은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과정에 있다.
- 어린이는 놀이감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세상에 대한 질문을 하고 스스로 탐구한다.
- 어린이의 놀이는 후에 '일'로 변한다. '어른들'이 하는 일과 어린이 놀이와의 차이점은 일은 외부로부터 과제가 주어지지만 놀이는 어린이 내면의 충동과 상상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 어린이는 놀이를 통해 인간 삶의 기능 속으로 들어간다. 기타 등등...

놀이에 대하여 열거할 것들은 한없이 많지만 이것들만 가지고도 ‘놀이가 어린이 그 자체’라는 말을 누구든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어린이의 놀이에 이 세상이 담겨있다는 뜻은 어린이들이 이 세상을 놀이에 재연하고 있다는 뜻이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어린이들은 끊임 없이 성인들의 세계를 관찰하고 집, 거리, 상점, 주유소, 대인관계 등 주변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놀이에서 낱알이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성인들의 행위와 삶이 어린이 놀이의 모델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성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린이들의 놀이에 바람직한 모델역할을 하고 있는가? 어린이들은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놀이에 곧잘 재연한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놀이를 잘 관찰해 보면 놀이의 종류, 내용, 어린이의 행위, 언어를 통해 요즘 세상의 모습과 아이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경험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린이들이 과연 건강한 경험을 하면서 지라고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을 해 볼 수 있다.

놀이는 어린이들의 신체, 인지, 정서 등의 발달을 촉진시켜주는 전인교육을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교육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놀이를 잘 할 줄 아는 아이는 나중에 공부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 하게 된다.

그런데 학원을 다니느라, 학습자를 하느라 가장 자연스러운 '교육 프로그램'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어린이들은 점점 더 인위적인 프로그램에 의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어린이의 놀이는 '그저 노는' 것이 아니다. 놀이를 하면서 동작의 섬세함을 익히고 기술을 배우며, 가장 긴밀하게 이 세상과 만나고 있다.

그런데 요즘의 놀이감들은 이러한 만남의 가능성을 앗아가고 있다.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 말하고 웃는 인형, 미디어나 컴퓨터 같이 기능이 주어졌고 이미 모두 완성된 기계들은 어린이들의 '자기행동'을 앗아간다. 놀이감이 고도로 발달할수록 어린이들은 자기 스스로의 행동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놀이는 어린이를 이 세상으로 안내하는 길이다. 놀이를 통해 어린이들은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의 삶이 어떤 것인지 맛을 보고 인간의 삶 안으로 합류된다. 깊은 만족감과 넘치는 즐거움으로 그 길을 경험했을 때 어린이에게 있어서 삶이란 즐거운 것이고, 세상은 정말 '살맛 나'는 좋은 세상이 된다. 그 즐거움은 나중에 어린이가 삶을 능동적으로 가꾸어갈 힘으로 전환된다.

놀이가 이처럼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요즘은 놀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만화영화를 보고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세상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줄어들고 있고, 성인의 세계를 모방하지 못하고 기계의 동작을 모방하다보니, 어린이들의 움직임은 점차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놀이의 행위가 특정한 목적이 없이 흥분하여 '날뛰며 노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어른은 그것을 못 견디고 아이들을 다시 비디오 앞에 앉혀 놓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도록 유도한다. 그것에 열중하여 있는 동안 억제되어있던 놀이(움직임)에 대한 본래의 자율적인 충동은 폭발되어 어린이로 하여금 다시 '날뛰게' 만든다. 어떤 어린이들은 놀이하는 법을 잊어버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서 놀이를 전혀 할 수 없는 아이도 있다. 그런 어린이들이 과연 이 땅에 두 발을 굳게 디디고 이 세상 속에서 미래의 세상을 향해 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제 놀이의 관찰대상인 성인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뿐 만 아니라, 놀이하는 법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어차피 밖에 나가도 바쁜 스케줄과 컴퓨터 게임을 하느라 함께 놀 다른 친구가 없고, 자유롭게 놀이를 할 장소도 마땅치 않으니, 우리는 어린이들의 놀이 파트너가 되어 안전하게 놀이를 할 장소를 마련해 주고, 놀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성인들이라 놀이하는 법을 잊어버렸다. 우리 스스로가 유아때 놓은 기존의 형태 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어린이와 같은 상상력을 가지고 풍요로운 놀이를 잘 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금방 지치고 '친구' 역할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게 된다. 그렇다. 성인은 어린이들의 놀이 파트너가 아니다. '놀이주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다. 성인이 할 수 있는 놀이 파트너 역할은 놀이 그 자체 이상인 삶에 있다. 성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삶을 다양하게, 풍요롭게, 열심히, 창의적으로 사는 것이다. 그 안에서 성인이 장난감을 다룰 수 있다면 그 시간마저 풍요롭고 창의적이기 때문에, 그 때는 진정으로 놀이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성인의 삶이 담긴 놀이를 어린이들이 함께 '맛' 볼 수 있는 바로 그 관계가 어린이들의 놀이에 모델이 되고, 놀이를 촉진시켜주고, 창의적인 놀이를 하게 한다. 우리는 어린이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 어린이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해야 한다. 어린이에 대한 생각은 곧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이며, 그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미래를 강하게 하는 일이다.

놀이는 어린이들의 자연스러운 행위이자 권리이다. 성인인 우리에게 일할 권리가 있듯이,

지방선거, 보육의 목소리를 높이자!

이윤경 · 본회 공동대표

6월 13일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과 광역, 기초 의회의 의원들을 뽑는 지방선거가 있는 날이다. 그 동안 한국보육교사회는 영유아보육법 개정활동, 보육예산 확보를 위한 국민서명전 등 중앙정부의 보육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보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법이 바뀌고 예산이 확보되는 것을 한없이 기다리고만 있기에는 지역별로 해결되어야 할 보육현안이 매우 많이 있다. 보육사업의 특성상 지역단위에서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 또한 매우 많다. 이에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천할 수 있는 보육정책을 제안하고 선거를 통해 보육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켜 보육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제안되는 내용 중 어떤 것은 지역에 따라서는 당장 요구하기 어려운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이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4년마다 한번 있는 이번 선거를 통해 보육문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투표권이라는 직접 민주주의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보육의 발전을 위해 제대로 된 보육공약과 정책의 제안자를 선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 그럼 한국보육교사회가 제안하는 제대로 된 보육정책공약을 보자.

1. 보육조례를 만들자 !!

현재 보육조례가 없는 지역이 너무 많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수행하는데 기본적인 지침이 되는 법률이다. 보육조례는 지방의회를 통해 만들어진다.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서 명시되지 않았지만 지역 특성상 필요한 부분을 집행할 때 지침이 된다.

예를 들어보자.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는

(보육위원회) ①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위원회를 둔다.

정도만 명시되어 있지만 조례에서는

제4조(구성)

제5조(기능)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의2(해촉)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회의)

제9조(위원의 수당)

-서울시 보육조례-

등이 상세하게 정해진다. 또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지역보육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세울 수 있다.

제13조(공립 보육시설의 설치)

① 공립 보육시설은 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기존시설로 수용능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공립 보육시설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과천시 보육조례-

2. 좋은 보육조례를 만들자 !!

보육조례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는 많을 수 있다. 또 이미 보육조례가 있는 지역도 있다. 그래서 어떤 보육조례를 만들고자 하는지, 또 어떤 내용으로 개정할지가 중요해진다. 여기서 보육조례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다섯 가지만 정리해 보았다. 이 내용은 보육의 공공성이 확보되고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을 주로 담고 있다. 이외에도 필요한 내용을 관련단체와 시민들의 요구를 통해 첨가할 수 있을 것이다.

1. 보육위원회

보육위원회는 지역의 보육정책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고, 보육료 상한선을 결정하고, 보육시설 입소대상자의 연령을 결정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따라서 공정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성원은 시설대표(시설장), 종사자(보육교사) 대표, 부모대표, 전문가, 지역시민단체대표,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1/5을 넘지 않도록 하고 각 분야는 동수의 일정인원으로 한다. 예를 들어 시설장 3명, 보육교사 3명, 부모대표 3명, 전문가 3명.

또 필요하다면 보육교사와 부모 대표의 시설장의 영향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보육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은 반드시 공개되어 지역의 모든 사람이 언

제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회의록의 공개이다. 공개시점도 정해 놓는 것이 좋는데 회의하고 1년이 지난 후에 공개한다면 공개의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보육위원회 회의가 있는 지 1주일 이내에 회의록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ii. 위탁, 재위탁 선정평가위원회

국공립 시설이 위탁을 맡길 때에는 그 수탁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제대로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을지 선정평가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선정평가 위원회 명단 및 위원회 구성의 기준도 조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위원의 명단, 선정평가의 기준, 심사과정, 심사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정한 위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위원에는 반드시 부모와 지역시민단체대표, 보육교사가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iii. 운영위원회

보육시설(어린이집)내에서 운영에 대한 점검과 부모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권장하도록 한다. 운영위원회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위탁제 관계자, 시설장, 지역인사, 학부모가 참여하여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심의, 결정을 하는 기구이다. 보육시설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 운영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보육시설에 필요한 지원을 함께 마련할 수도 있다. 회의록은 보육시설 이용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한다.

iv. 정기적인 지역 보육수요조사 실시와 부족한 시설에 대한 확충 계획 마련

2년 또는 3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지역의 보육수요를 조사하여 필요한 보육시설이 부족한 경우 확충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또 이를 통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v. 비용보조

비용의 보조에 대한 항목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를 근거로 지자체 보육예산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제18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2조 및 영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영아·장애아 보육 운영비
2. 생활보호대상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3. 보육교사재교육비
4. 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
5. 야간·24시간, 휴일제 보육 운영비

6. 교재교구비

7. 보육아동 급식비

8. 기타 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이 시장이 정한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 조치하는 등 국·공립 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육종사자의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서울시 보육조례-



1) 전액면제아동 보육료 차액지원

-지원시설: 민간시설 및 가정보육시설

-지원대상: 보육료 전액면제아동이 민간시설을 이용시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보육료 (실보육료)와 정부지원 보육료와의 차액 지원

가) 야간·24시간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시설: 야간·24시간 보육을 병행 실시하는 정부 지원 및 민간시설

-지원기준: 교사대 아동비율은 상시 24시간 보육아동이 양아는 교사 1인당 2명, 유아는 교사 1인당 4명 혼합연령은 교사 1인당 3명을 기준으로 소요교사 인건비 지원

-조례에 따른 서울시의 실제 지원 내역(일부 발췌)-

이제 마무리를 하자

위에서 이야기한 내용 이외에도 장애아보육을 위한 특별한 조항이나 방과후 보육에 대한 세부규정 등을 보육조례에 담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보육교사들의 재교육이나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부분이 단순히 몇몇의 정치적 로비나 영향력, 또는 선심정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현장종사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보육을 받는 아동들의 권익을 보장하며 좋은 보육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개적인 공약요청서를 후보자들에게 보낼 수도 있고 공청회나 지역주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모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보육발전의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자, 이번 지방선거가 지역 보육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보육을 크게 떠들어 보자!!

외국의 보육정책 시리즈 2

- 호주 편

정리 보육정책위

보육의 질적 향상과 관리의 문제 >>>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지 11년이 되었다. 그동안 비록 민간주도라는 한계를 가지고는 있으나 보육시설의 양적 성장은 괄목할만한 것이었다. 1992년 불과 시설수 4,153개소와 보육아동 129,297명에서 2001년 12월 현재 시설수 20,097개소와 보육아동 734,192명으로 시설수에 있어서는 5배 가까이, 6배 가까이 성장하였다. 물론 아직도 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모두 담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양적 확대는 이용자들에게는 시설선택의 문제를, 서비스 제공자들에게는 원아모집의 문제를 고민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각 시설이 가진 서비스의 내용과 질에 대한 고려가 보육문제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육서비스가 단순보호에서 점차 가정과 지역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포괄적 서비스로 전환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보육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 80%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의 경우 그 관라나 지도를 책임지는 단위가 없어 아동의 안전과 권리보장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육에 있어 기본적인 공공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의 핵심인 정부지원의 양과 방법에 있어서는 뚜렷한 기준과 대안이 부족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최근 들어 평가인증제도와 이를 통한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보육의 발전을 위해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이에 외국의 보육정책 시리즈의 두 번째를 준비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평가인증제도를 시행하는 호주의 보육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시리즈 첫 회에서도 강조했듯이 각 나라의 정책과 제도는 아무리 우수하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 영향아래 성립, 발전되어 온 것이며 한국은 한국의 조건 속에서 가장 바람직한 제도를 만들기 위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호주의 평가인증제 모형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현재 우리의 수준과 과제를 인식하고 발전을 위한 하나의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다만 호주의 보육제도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얻기가 힘들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점, 양해를 바란다.

호주라는 나라

호주는 잘 알다시피 하나의 대륙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나라의 크기도 매우 커서 한반도의 약 35배, 알래스카를 제외한 미국본토 면적 정도의 영토를 가지고 있다. 이는 러시아, 캐나다, 중국, 미국, 브라질에 이어 6번째 면적에 이르는 광대한 땅이다. 이에 비해 인구는 2천만명에 못 미친다.

다.(2001년 기준) 서울시 인구가 천만명이 넘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호주는 넓은 땅에 적은 인구가 드문 드문 떨어져 생활거주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인구의 대부분은 몇몇의 대도시에서 집중되어 있어 주요 5개 도시에 전체인구의 50%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보육문제에 있어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시설중심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되어 방문탁아 등 특별한 형태의 보육서비스의 형태를 고안하게 된다. 국가형태는 입헌군주제이며 영국여왕이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국가원수로 되어 있다.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이며 의회는 상원, 하원의 양원제이다. 호주는 미국식 연방제국가이다. 따라서 지방분권제가 매우 발달하였는데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 또는 Commonwealth Government)와 주정부(State Government : 6개 주 및 2개 특별구역) 및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 약 700개)간에 권한이 분산되어 있다. 각 정부간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 연방정부 국방, 외교, 무역, 금융, 체신, 통신, TV, 라디오, 고용, 소득 및 법인세, 이민 및 세관, 여권, 연금, 항공 등
- ※ 주정부 학교, 법원, 도로, 철도, 자동차등록, 산림, 경찰, 소방, 야생동물 보호 등
- ※ 지방정부 도시계획, 도로교통, 도서관, 쓰레기수거, 하수도, 운동시설, 지역관광 등

이에 따라 보육정책과 제도도 주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역별로 나름대로의 운영방식을 가지고 있다.

국민소득은 높은 편으로 GDP(2000년 기준)는 OECD 국가 중 11위, 1인당 GDP(2000)는 OECD 국가 중 18위이다. 호주국민의 80%가 앵글로색슨계의 백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최근까지도 이민을 제한하고 백인중심의 정책 - 이른바 백호주의정책을 시행하였다. 1973년에 이르러서야 백호주의정책 폐지하고 1975년에 인종차별금지법(Racial Discrimination Act)을 제정하였다. 호주는 광대한 국토, 적은 인구, 풍부한 자원으로 비교적 높은 생활수준을 향유할 수 있는 천연의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비경쟁적 사회(uncompetitive society) 분위기를 형성하게 된다.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는 1909년부터 국민복지를 위한 정부 역할이 증대되어 고령자연금, 장애연금 및 산업수당제도 도입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지난번 스웨덴의 예에서도 나타났지만 강력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다. 어느 사회나 복지란 사회적 부의 재분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득권세력과 힘의 대결에서 노동자계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호주는 188개의 각종 노동조합에 300만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호주 전 노동자의 40%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참고로 한국의 노조가입률은 11~12%이다. 대표적인 단체로 전국 노동조합 연합회(ACTU : 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가 있으며 전국 노조의 약 90%, 250만명의 노조원이 가입된 단체이다.

호주 복지정책의 특징

호주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징은 철저한 자산조사(소득조사)에 바탕을 둔 보장제도라는 점이다. 이는 중

산층 이상 가정에 대한 불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줄이면서 특정한 욕구나 필요가 있는 계층에 대해 최저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1970년대 중반까지 호주는 국내산업에 대한 보호정책으로 완전고용과 낮은 실업률을 달성할 수 있었고 이는 국가가 통제하는 광범위한 최저임금제도를 가능하게 하여 임금 간 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호주에서는 아동수당을 제외한 모든 사회보장급여(실업급여, 노령연금 등)에 대해 소득조사를 기초로 지급하였고 이는 국민자를 찾아내기 위한 정책이라기보다 중산층을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다른 유럽의 국가에 비해 높은 출산율과 낮은 이혼율로 인구구성이 젊어 노령기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었고 제도화되고 문화적으로 뿌리깊은 주택소유에 대한 의식으로 주거불안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사회복지에 사용되는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호주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노동운동이 유럽보다 훨씬 일찍부터 정치적으로 강력하여 개인들의 위기(실업, 노령 등)에 대해 일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1922년 호주의 중재법원은 "문명사회에 사는 인간으로서의 평균적인 피용인(고용된 사람)의 정상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임금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으로 규정하였다. 이것은 남성이 그의 아내와 두 세명의 자녀를 충분히 부양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공정임금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러한 '가족임금'의 개념이 그후로 오랫동안 사회정책과 임금정책의 중심이 되었다. 또한 높은 수준의 관세장벽, 이민의 통제 등 국내산업의 보호를 통해 높은 임금과 일자리를 보장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전세계적인 경제불황은 호주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남성의 노동참가율 감소와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 가족해체의 증가(1970년대 이혼법 개정 이후 이혼율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됨) 등으로 남성노동자를 모델로 시행되던 공정임금(가족임금의 형태를 가진)은 더 이상 가족의 안전망이 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였다. 소득분포에서 중산층은 점차 사라져갔고 임금불평등이 심화되었으며 저임금의 시간제 고용이 표준임금의 전일제 고용을 대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편부모 가정은 빈곤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되었고 아동보호수당(보육수당)의 지급으로 취업여성이 늘기는 했지만 이들의 임금수준은 여전히 남성노동자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호주의 노동운동은 모성보호와 부모원조급여를 직업급여로 요구하게 되고 1995년에 모성급여가 결실을 얻게 되었다. 또 경제상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공지출의 삭감보다는 정확한 소득조사를 통해 공공지출의 성장을 막으려는 시도를 통해, 일정소득 이상의 계층에게 공공지출을 하지 않으려는 시도. 공공지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사회보장 제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가족빈곤, 특히 편부모가족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저소득가족의 아동에 대한 보충적인 급여가 노동당 정부에 의해 도입되었다.

보육제도 개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호주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회, 정치, 경제적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 중에서도 여성의 취업율의 증가는 육아문제의 사회적 해결이라는 압력으로 등장하게 된다. 1950년대 이후 취학전(만5세)연령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여성의 취업증가로 직장여성 중 아이를 가진 비율이

호주의 경우는 이것은 단순한 시설의 확대뿐만 아니라 호주의 특수한 생활조건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함께 등장하게 된다. 도시에서 떨어져 있는 소규모 농촌 거주지와 인구의 다양성(100가지가 넘는 문화와 언어)으로 인해 노동자가족, 고립된 농촌가족, 도시와 시골의 토착민 가족, 비영어권 배경을 가진 가족, 저소득층 가족 등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가 요구받게 된 것이다. 호주도 몇 년 전까지 한국과 유사한 유아서비스의 분리가 존재하였는데 취학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프리스쿨과 0세~취학 연령까지를 포괄하는 보육서비스가 그것이다. 프리스쿨은 취학전 연령에 대해 1년간 하루 3~4시간 정도의 교육활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대개의 주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여성의 증가로 시간 제서비스에 참여할 수 없는 아동이 생김에 따라 시간을 연장하거나 나흘간 만나절씩 참석하는 것을 이틀간 종일 참석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등 탄력적 운영을 고민하게 되었다. 보육프로그램의 발달은 19세기에 유아건강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였는데 1940년대 이후 영리적 보육사업가가 등장하여 시설중심의 보육이 확대되다가 1972년 연방 보육법이 공포되면서 연방정부가 보육시설에 대해 부가적인 재정지원을 시작하게 된다. 초기 보육프로그램들은 자녀를 돌보는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가족에 대상으로 하였으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는 종일보육에 대한 요구를 확대시키게 된다.

유아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1) 종일제 보육시설

설치주체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운영위원회, 지방의회, 개인소유자, 직장의 고용주들에 의해 운영되거나 후원된다. (한국식으로 보면 육아협동조합, 국공립, 민간, 직장 보육시설)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종일(오전8시부터 오후6시까지) 운영되며 일부시설은 주말보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2) 가정보육

개인가정에서 소수(4명정도)를 보육, 가정보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훈련을 받았으며 지방의회로부터 지속적인 지원과 감독을 받음

3) 일시보육

주민학습센터, 쇼핑센터 등지에서 부모의 활동에 따라 필요한 몇 시간 또는 며칠간의 단기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이 역시 주정부에 의한 재정지원이 있음

4) 프리스쿨/유치원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1년 과정의 교육기관. 작은 농촌지역을 방문하거나 마을회관과 같은 회합지에서 운영하는 소수의 이동시설 포함.

5) 6~12세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

맞벌이 부모의 자녀를 주 대상으로 방과 전·후, 방학, 교사의 연수참가로 공백이 발생할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 지역의회나 지역공동체 기구에 의해 학교와 다른 공간에서 운영되며 주정부의 지원이 있음.

6) 비형식적 교육

친인척, 이웃에 의한 교육. 1994년 연방정부는 비형식적 교육을 이용하더라도 보육료 공제제도에 적용을 받도록 함.

특수한 요구를 가진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

위와 같이 일반적인 보육서비스이외에도 장애아나 발달상의 문제를 가진 아동들을 위해서도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1) 종일요양보육

2) 부모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유예보호 또는 응급보호

3) 특별한 가족지원

4) 조기중재프로그램

장기적인 발달지체를 가진 6세이하의 아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부모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5) 가정중심 프로그램

전문가나 자원봉사자가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특별한 발달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6) 부모 자조집단

7) 장애아동의 형제, 자매에 대한 지원

8) 특수 프리스쿨 또는 장애인 학교

9) 방문교사와 통합지원단

이들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계자를 돕기 위해 프리스쿨, 학교, 보육시설을 방문한다.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고민들

호주에서 유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에 대해 논의가 시작된 배경을 살펴보자. 가장 중요한 점은 유아기에 있어 발달에 적합한 교육적 프로그램과 적절한 보호 및 건강상의 도움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평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호주에서 질적 향상에 대한 고민은 대표적인 유아 서비스인 프리스쿨(유치원)과 종일제 보육이라는 두 가지 형태사이의 간격을 변화하는 사회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조화시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시작되었다. 또한 유아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서비스 질에 대한 개선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인 유아교사와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 서비스에

대한 부모들의 참여, 프로그램 과정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991년 보육 실무자를 위한 실행기준과 의사결정에 대한 지침으로 윤리강령이 호주 유아보육연합회에 의해 제정되었다. 아이와 가족에 대해 보다 응집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보다 광범위한 서비스의 제공과 제공의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첫째, 출생에서 취학아동에 이르는 아동을 위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이며 통합되고 융통성있는 "educare"서비스의 필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체계의 필요가 그것이다.

둘째,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 및 발달 심리학자, 상담원, 재정상담원, 의료인, 변호사 등을 통해 다학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상이한 교육훈련, 보수, 근무조건은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됨으로 근로조건과 양성과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비용의 문제에 있어 재분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이 검토되어야 한다.

(질리안 로드/ 멜번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호주에서도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하는 초기에는 영리시설의 반발과 평가거부 등의 진통이 있었으나 아동양육과 교육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질적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의해 이제는 정돈된 시스템으로 기능하고 있다.

평가인증제(QIAS : Quality Improvement and Accreditation System)

1) 목적

■ 종일제 보육시설에서 양육되는 아동의 건전한 발달 및 종사자(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 향상과 지역사회의 보육시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유아초기의 배움과 발육을 최대로 촉진시키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의 제공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아동보육보조금 지급과 시설평가인증제를 연계시켜 인증을 받지 못하는 기관에서 보육받는 아동은 보육료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평가인증제도는 연방정부에 의해 자금지원을 받는다.

2) 양질의 보육이란?

■ 시설과 가족 양측이 동의한 명확한 철학과 목표를 가지고 그것에 따라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동들과 추가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의 개성과 상호의존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육성한다.
■ 아동의 발육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경험과 활동의 적절성을 고려한다.
■ 가족의 참여를 격려하고 종사자와 가족간의 관계를 증진시켜 서로의 역할을 보완하고 지원한다.

3) 평가의 영역과 원칙

(1) 아동과의 관계

-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동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 아동의 행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도한다.

(2) 아동의 인격존중

- 직원은 아동과의 대화를 먼저 시작하고 유지하며, 존중심을 나타내고 공평하게 대화를 이끈다.
- 아동의 다양한 능력과 사회,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고 아동 개인의 필요와 욕구에 편의를 제공한다.
- 식사시간은 즐겁고 사회성을 기르며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준다.

(3) 가족과의 협력

- 가족과 지속적인 대화, 서신왕래 등을 통해 아동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는다.
- 가족이 시설의 계획,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 신입아동과 가족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4) 직원간의 상호행동

- 직원들은 서로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협력하며 맡은 역할을 수행한다.

(5) 계획 및 평가

- 프로그램에 시설의 철학과 목표가 명확하게 반영된다.
- 아동의 학습 및 복지상태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 각 아동에게 적절한 경험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데 활용한다.
- 프로그램은 아동의 필요성, 흥미, 능력을 고려하여 성공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제공된다.
-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평가된다.

(6) 학습 및 발육

- 프로그램은 아동이 스스로 선택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도록 격려한다.
- 프로그램은 신체발육을 촉진시킨다.
- 프로그램은 말하고 읽고, 쓰는 능력을 촉진시킨다.
- 프로그램은 개인적 발육과 대인관계에서의 발육(사회성)을 촉진시킨다.
- 프로그램은 호기심, 논리적 탐구, 수학적 사고력을 촉진시킨다.
- 프로그램은 동작, 음악, 시각, 공간적 형태의 표현을 이용하여 창의적이고 심미적인 발육을 촉진시킨다.

(7) 보호

- 아동의 보호, 건강, 안전에 대한 방침과 절차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가지고 있으며 항상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항상 아동들을 감독한다. (성인의 눈길이 미치는 곳에 아동이 있다.)
- 배변, 기저귀갈기는 긍정적 경험이며 아동 개별의 필요성을 충족시킨다.
- 실내의 놀이 시 적합한 옷차림을 하도록 하고 휴식/수면 시간 및 옷 입는 과정에서 혼자 하도록 격려하며 개별적인 휴식의 필요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한다.

(8) 건강

- 급간식은 영양이 고려되고 문화적으로 적절하며 건강한 식습관이 형성되도록 장려한다.

- 음식위생의 표준과 위생업무를 이행한다.
- 아동이 위생규칙을 따르도록 격려한다.
- 전염병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며 예방접종 기록을 보관한다.

(9) 안전

- 건물과 설비는 안전하다.
- 위험의 소지가 있는 물건들은 아동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있다.
-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한다.

(10) 관리

- 운영자는 가족 및 직원(보육교사)과 적절하게 상의하며 운영에 관한 정보는 공개된다.
- 직원의 채용은 아동의 보육지속성이 보장되도록 이루어진다.
- 신입직원에 대한 시설의 철학, 목표, 정책, 절차에 중점을 둔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한다.
-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재교육기회를 제공한다.

4) 평가인증의 절차(5단계)

(1) 등록

- 종일반육시설은 보육인증위원회에 등록하고 평가기준에 대한 52개원칙 등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음.
- 등록비는 연회비 형태로 과인증자가 부담

(2) 자체평가

- 보육인증위원회 등록 후 시설은 원장, 교사, 부모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52개 원칙 기준으로 자체평가 실시
- 등록 후 18개월 이내에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3) 검토자 평가

- 보육인증위원회에서 선정한 검토자가 보육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자체평가서의 타당성 검사 실시 후 관찰보고서 작성
- 정원이 29인 이하의 시설은 1일 방문, 30명 이상인 시설은 2일 방문
- 시설과 검토자 사이에 이해관계나 갈등이 있을 경우 이의제기를 하면 문제가 없는 검토자로 파견

(4) 조정자 건의

- 조정자는 유아교육분야의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 최소 8년 이상의 아동관련서비스에 관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선정.
- 조정자는 자체평가보고서, 방문평가보고서, 시설장의 평가서, 실천계획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인증위원회에 인증건의 및 문제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의

(5) 결정

- 인증위원회는 자체평가보고서, 관찰보고서, 조정자의 보고서 및 제안을 참고로 해당시설의 인증여부와 보육 수준을 결정하고 실천계획의 실시기한 결정을 통보
- 보육시설 수준을 3단계로 구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인증 기간을 1-3년으로 다르게 적용.

5) 평가인증위원회의 구성

- (1) 1993년에 설치됨
- (2) 지역서비스장관에 의해 임명되는 7인(위원장 1인, 위원 6인)으로 구성
- (3) 시드니에 위치한 사무국과 호주 전역에 거주하는 300인의 확인자(검토자)와 30인의 조정자로 구성됨.
- (4) 종일보육시설에 대한 인증시스템과 가정보육의 질 검증시스템의 집행 및 운영상황 조사, 평가를 시행

결론에 대신하여

호주의 평가제도는 단순히 시설의 등급을 매기거나 보육료 지원의 기준을 선정하는데 있지 않고 보육시설이 지속적으로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돕는데 있다. 따라서 여러 단계를 거치는 평가를 통해 전문가들은 각 시설의 부족한 부분과 개선되어야 하는 점을 조언하고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평가의 목적은 부모들에게는 시설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시설에는 현재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며 아동들에게는 좋은 보육환경을 제공하는데 있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처럼 전체적인 보육비용에 대한 정부의 부담이 적고 보육시설의 필요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시설평가가 자칫 가정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차별적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즉 보육료의 아동별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우수시설로 평가되면 보육료를 올리는 효과를 가져오고 결국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가정은 우수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는 질 낮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지역내에 보육시설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시설의 질에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평가가 실질적인 질 향상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보다 훨씬 광범위한 아동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 보육서비스의 직접 제공자인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과 처우에 대한 내용이 평가의 중요한 항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아동지원의 확대와 시설을 설치할 때 기본적인 시설기준을 검증하여 허가를 내주는 인가제를 도입한다면 평가인증제도는 보육의 질을 높이는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과 호주의 보육정책 비교 / 1995년 /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삼성복지재단
호주 국립보육인증위원회 홈페이지(www.ncac.gov.au) 자료 중 일부
변화하는 복지국가 / 1999년 / 인간과 복지 출판사/

목차

보육교사, 당신의 자리는 참 곱고 아름답습니다.

편집부

올해 들어 보육교사들의 목소리가 부쩍 커졌습니다. 처음 보육을 시작하면서 가졌던 또는 사회적으로 요구받았던 '희생과 봉사'의 정신은 해마다 쌓이는 피로감과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 버텨낼 재간이 없어지고 점차 보육교사가 행복하고 즐겁게 일할 때 진정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엄마로, 때로는 교사로, 때로는 친구로 아이들을 만나는 우리들에게 이 5월은 참 많은 생각을 던져줍니다.

가정과 사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이 5월에 현재의 우리 보육교사의 모습을 반성하고 우리가 바라는 보육교사의 모습과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동료, 선배, 후배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해 보고 싶습니다.



이야기 하나... 나는 이런 보육교사가 되고 싶은 소망이 있네~

*** 모든 아이를 사랑하자!

선바람 저는 아이가 장애아이다, 비장애아이다, 부모가 제대로 있는 없는 상관없이 오히려 장애아동이나 어려움에 처한 아동에 대해 보육교사의 손길을 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역마 전에 근무하던 시설에 있던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은 자기 반에 있는 아이 뿐만이 아니라 그 어린이집에 있는 모든 아이한테 신경을 많이 써줘요. 그 사람의 기질이 꼭 내 것만 쟁기는 것이 아니라 내 것도 내 것이지만 다른 반 아이들도 다 내 자식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담임 선생님이 놓치는 것도 그 선생님이 집어주기도 했어요. 같이 나들이를 가거나 다른 반 아이들과 섞여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 반 아이가 아니니까 그 아이를 동행시키고 신경을 덜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 아이들은 내 친구, 나도 아이가 되자! 노--을--자!

달콩이 보육교사가 교육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내가 해내고야 말아야 한다는 데서 스트레

스를 많이 받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보육교사는 어떤 활동에 대해 미리 머리로 '그래, 이런 교육목표를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날은 그런 활동이 교사의 의도와는 상관 없이 안 될 경우가 있잖아요?

예로 제가 얼마 전에 산에 가서 산가지를 주워왔어요. 전에 근무하던 곳에서 7세 아이들하고는 산가지놀이 활동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산가지 길이도 다르게 하고 굵기도 다른 것을 모아서 어린이집에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아이들 앞에 펼쳐놓으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별 관심이 없었어요. 아이들은 그냥 원래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아이들에게 산가지 놀이를 하자고 했을 때 익숙하지가 않으니깐 게임규칙도 잘 안 지키고 저화들도 흥미가 떨어지니까 막 나가요. 나는 이것을 꼭 하고 싶은데 안되니까 그날은 하다가 "에이, 그만 뒤, 가서 놀아." 그랬어요. 그날은 제가 실망을 했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안 되도 그만, 해도 그만이라는 심정으로 아이들이 자유놀이 할 때 일대일로 하고 관심 있는 아이들 두세 명씩 하나씩 지금은 곧잘 해요.

그런 걸 보면서 보육교사가 단기목표보다는 장기목표를 가지고 그 순간에는 활동이 안 되더라도 오랫동안 끈기를 가지고 아이들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아이들과 활동을 하고 활동 자체를 놀이로 즐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타오 저는 이번에 3,4세반을 맡게 되었는데 큰 반일 때와는 느낌이 다르고 또, 더 예쁘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요즘 고민되는 건 내가 아이들의 마음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눈빛을 보고 아, 아이들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하겠구나 하는 것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수첩에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이해 할 수 있게 노력하자라는 말을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눈빛만을 보고도 아이들의 느낌이나 생각을 알 수 있는 보육교사가 되고 싶어요.

나비 내가 생각할 때 좋은 보육교사는 이 일을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일을 좋아하면 좋은 교사가 되고 오래 버틸 수 있는데 일로 생각을 하면 오래 못 하는 거죠. 보육교사라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좋은 보육교사인 것 같아요.

난 사실 좋아서 이 일을 했는데 아주 냉정하게 '난 돈 벌려고 해'라고 얘기하는 보육교사를 보면서 물론 그런 사람이 프로페셔널하게 자기가 맡은 일을 책임 있게 잘해 내기도 하지만 정말 저 사람이 오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좋아서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부족할 지 모르지만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나가요. 포도주가 오래 묵어서 좋은 향기가 나듯이 좋아서 하는 사람들은 10년쯤 지나면 숙성한 향기가 나요. 저는 그렇게 되는 보육교사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완벽한 보육교사는 없어요.

*** 자기반성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햇님 저는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그런지 내가 제대로 아이들을 바라봐 주는 지 걱정이 돼요. 내가 제대로 하는 것인지...

홍강역지 최소한 그런 문제의식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발전 가능성이 있고 좋은 보육교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더 좋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요. 스스로에게 의문을 던지고 속에서 자신을 평가하잖아요.

나무바람 나는 보육교사이자 엄마인 사람의 이중성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요. 낮에는 보육교사라는 공적인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밤에는 사적인 시간 속에서 자기의 아이를 돌봐요. 그런데 나는 우리 아들한테 아주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낮에는 똑같은 상황이라도 절제를 하고 아이들에게 잘 하는데 밤에는 긴장이 풀어져서 우리 아이를 혼도 많이 내고 그랬어요. 제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아이도 느끼면서 점점 말도 안 듣고 나빠지는 거예요. 어느 날은 그림에 'XXX(나무바람 선생님 이름) 바보'라고 써 놓았어요. 아이는 정말 내가 미웠던 거지. 그 심정을 이해하겠어요.

우리 어린이집에서 엄마들하고 같이 책을 읽고 토론회를 했었거든요. '이 시대를 사는 따뜻한 부모들의 이야기'라는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반성을 했어요. 그것을 계기로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엄마 보육교사들이 힘들 때 읽어보시라고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지 말고 편안하게 자기 아이를 대하자는 거지요.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요요 저는 말 그대로 바른 생활(?) 몸과 마음이 건강한 보육교사가 되고 싶어요. 보육교사는 아이들에게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정신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보육교사회 들어와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시야도 넓어지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선생님들을 보면서 배우는 게 많아요.

진달래 나는 건강한 보육교사들이 부러워요. 내가 몸이 많이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올해 처음으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어요. 이제 자모의 입장이 되기도 했는데 아이의 선생님이 너무 마르고 기본적으로 약해요. 그 선생님 아픈 것을 보면서 내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에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불안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보육교사가 건강하고 씩씩할 때 확실히 부모들이 믿고 아이를 맡기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씩씩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사고방식도 긍정적일 거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육교사가 체력도 좋고 건강해야지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이들 보는 앞에서 내가 지치거나 아픈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요즘 들어 들더라고요.

나무 보육교사경력이 좀 오래 되면 많이들 지치잖아요.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한 달간 일본연수를 갔었는데 거기 가서 반성을 많이 했어요. 사실 우리는 30대에도 계속 보육교사를 하고 있으면 대단한 연륜이라고, 10년 정도 보육교사를 하고 있으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일본에 가니까 30년을 하신 분도 있어요. 그 분들을 보면서 반성을 했어요. 우리는 보육경력한 10년쯤 되면 아이들하고 애같이 잘 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은 30년, 35년 동안 보육을 하면서도 아이들하고 노는데 머리로 세일러문(?) 같이 하고, 나이가 60인데도 아이들하고 막 노는 거예요. 그런 것

을 보면서 '우리 너무 힘들었습니다'라는 말을 아무 생각 없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을 가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까 건강 얘기가 나왔는데 보육교사가 건강해야 할 아이들에게도 건강한 마음을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작년부터 영아와 지내면서 고마운 마음을 느꼈어요. 큰 아이들도 물론 재미있고 즐거운데 영아들은 몸을 많이 부대끼면서 느끼는 감사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내 마음이 순화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올해는 아이들 연령이 더 낮아져서 그 아이들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았는데도 그 아이들에게서 무언가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귀여운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건강해서 그 일본의 선생님처럼 늙지도 않았는데 이 젊은 나이에... 나도 감격하지는 않지만 감격하게 놀아주고 그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때 일본 가서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그 연세 많으신 50대, 60대 분들이 활기차게 아이들하고 똑같이 놀아주는 것을 보면서 보육교사는 나이를 잊어야 되는구나, 나이를 먹지 않는 보육교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 처음에는 우리 어땠지?

별이 저는 지금의 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올해 큰 반을 맡으면서 아이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하고 지내면서 제 목소리가 너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너무 위협적인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을 느껴요. 집에 가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아침에 어린이집에 오면서도 오늘은 목소리를 좀 높이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하는데 저녁에 보면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참 고민이 많이 돼요. 항상 생각하는 게 내가 보육교사를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이면 내가 이렇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이 돼요. 내 스스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알고는 있는데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이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상황이 그렇다고는 하지만 아이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목소리를 아이들 톤으로 해주고 그리고 위협을 덜 하는(?) 보육교사가 좋은 보육교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산골소녀 저도 별이 샘이랑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요즘 제가 인내력이 없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처음에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 오늘 아이들과 잘 지내야지' 하는데 어린이집에 가서는 아이들이 '아이'라는 생각을 자주 잊어버려요. 그냥 나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는 아니니까 저럴 수 있는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내 스스로 자꾸만 인내심을 잃고 정도에 지나친 혼을 낸다든지 할 때 '왜 이렇게 내 인내심이 줄어들었을까?' 이런 자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별이 선생님처럼 그랬어요. 항상 다시 처음처럼, 아침처럼 마음가짐을 하고 가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또 결력이 짧아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인내력이 있는 보육교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보육교사가 되고 싶은 소망이 있나요?



아이기 두음... 아름다운 보육교사 따라잡기

아이 내가 아는 선생님은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역할을 맡잖아요? 그 때 자기 역할도 자기역할이지만 막 나누려고 해요. "거긴 어떻게 잘 되어가?" 하면서 힘들어하면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데 처음에 그런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 모습이 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챙겨주고 조언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그 당시에는 피곤하기도 하고 참견 같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러한 행동이 그 사람의 품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달래 제가 얼마 전에 비고츠키에 관한 책을 봤어요. 거기에는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다양한 방법이 많이 소개되어 있었어요. 그 책을 보며 따라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아이들에게 해 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교육활동을 할 경우에도 의무감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활동을 하면서 어떤 교육적 효과를 노리고 하는 경우도 있지요.

제가 아는 보육교사 하나는 아침에 아이들과 놀이터로 나갈 때 아주 못생긴 생쥐 인형을 하나 가지고 나와서 놀이터로 나가는 아이들 하나 하나에게 그 생쥐로 뽀뽀를 해주면서 "재미있게 놀아"라고 얘기하면서 아이를 밖으로 내보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그냥 보면 참 유치해 보여요. 볼 때마다 좀 우스웠어요. 아이들도 처음에 생쥐가 뽀뽀를 하니까 자기들끼리 막 웃고 이상한 표정도 짓고 했어요. 그런데 매일 나갈 때마다 뽀뽀를 해주고 한 명씩 내보내주고 하니까 아이들이 앉아서 생쥐가 자기에게 뽀뽀를 해줄 때까지 예쁘게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들은 교사의 손을 많이 기다리잖아요. 아이들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안아주고 끌어주기를 바라는데 사실 시설이 큰 곳에서는 보육교사가 아이들보다 높은 시선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며 사고가 나는지를 살파는 게 하기 쉬운 일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나랑 같이 그 책을 공부한 사람인데 배운 것을 아이들에게 실천하고, 게다가 나처럼 교육적 효과를 노리고 해야겠다는 거 아니라 막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일대일로 사랑을 줄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서, 그 반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아, 저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공부한 내용을 현장에 결합시키고 그 결합시키는 마음자세가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아이랑 눈맞춰 주는 그 보육교사를 보면서 '참, 저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삼사리 저는 어떤 어린이집의 선생님이 한 아이에게 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어서 소개를 하려고요. 어린이집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바깥을 나가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집에서 어머니가 옷을 제대로 챙겨 입힐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가는데 나갈 때마다 그 아이에게 예쁜 옷을 입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린이집에 보관하고 있는 옷들 중에서 골라서, 예쁘게 머리도 빗겨서...

그래서 물어 봤어요. 왜 아이에게 옷을 바꿔주느냐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어린이집 안에서

는 그 아이에 대한 사정을 다 알아서 차별적인 것이 없을 수 있는데 밖에 나가면 사람들의 눈길이 달라질 수 있고 그 아이가 밖으로 나가서 느끼는 것들이 고민이 돼서 어디 갈 때마다 옷에 대해 신경을 쓰고 외출 복을 따로 준비해 둔대요.

그것은 미리 어린이집 교사회에서 논의된 것도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건의한 것도 아니에요. 보육교사로서 어린이집 안에서 아이 하나 하나를 보살피는 것 말고도 아이가 밖에 나가서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고민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에 대해 다각적으로 고민하는 그 교사를 보면서, 그것이 몇 년 전의 일임에도 아직까지 기억에 많이 남아요.

나미 나는 그 사람의 전체를 담고 싶다는 사람은 아직 못 만났지만 저 사람에게서는 저런 걸, 이 사람에게서는 이런 걸 담고 싶다는 생각은 들어요. 사람마다의 얼마만큼씩의 장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에 다니던 어린이집에 무지하게 말쑥꾸러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애가 벽장에 자꾸 들어가요. 들어갈 때마다 나와라 라고 했지 그 아이가 거기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는지는 몰랐어요. 어느 날 청소를 하려고 벽장을 열어보니 온통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싸인펜, 크레파스 등으로 낙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야단을 쳐야 하나 하고 난감해 하고 있는데 같이 있던 교사가 "선생님이 잘못 했구나, 네가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종이랑 필기도구를 안 준 건 내 실수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았지요. 아, 내가 이 아이 행동의 잘 잘못을 혼내기 전에 내가 이 아이 욕구에 얼마나 반응하려고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리기 저도 담고 싶은 교사가 많아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축 처져 있을 때는 막 몸으로 산나개 아이들과 놀고 있는 선생님을 보면 '맛아, 저렇게 놀아줘야 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놀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또 어떤 교사는 영아반 교사인데, 솔직히 아이들 가져다 같이주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다른 반 아이라도 "어머, 애 통 샀네." 하면서 스스럼없이 가리지 않고 해요. 굳은 일이어도 내 일 내 일 가리지 않고 하는 교사를 보면 담고 싶어요.

또 무슨 일을 할 때 'no' 소리를 하지 않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게 다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일이 있을 때 '한 번 해 보겠습니다.'라는 그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늘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왜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모습들이 담고 싶어요.

무리기 나는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부모하고의 관계에서도 훌륭한 보육교사의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낳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부모들에게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이를 낳았으면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지 하고 제대로 못하면 부모자격도 없다'는 등등의 불만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저랑 같이 일하던 동료 선생님은 나처럼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낳지 않았는데 부모들과의 관계를 잘 푸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선생님이 상담을 하는데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거나 그렇지 않아 보였어요. 다만 그 선생님은 부모들과 이야기 할 때 부모에게 보육교사로서 무엇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일을 해야 하는 엄마의 심정 등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부모들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도 무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들의 형편에 맞춰서, 또 어린이집에서 요구하거나 부탁한 것을 잘 못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화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들에게 일방적인 제 모습에 좀 반성을 했지요.

하마 어떤 선생님이 공부방에서 일을 하는데 그 공부방에서 아이들이 대표를 뽑자고 하더라고요. 손 들고 후보도 추천하고, 개똥이 말똥이 등등 이름을 칠판에 적다가 한 아이가 선생님을 추천했대요. 선생님이 두 분인데 둘 다 추천을 받았어요. 그리고 후보 한 명씩 나와서 출마의 변을 하는데 선생님들도 했어요. 한 선생님은 "나는 선생님인데 어떻게 공부방 대표를 하겠니?"라고 못하겠다며 나갔어요. 그런데 한 선생님은 "저를 공부방 대표를 시켜주시면 하루에 한번씩 받아쓰기를 하구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대청소 하구요, 하루에 꼭 한 권씩 책을 읽구요..."라고 얘기했어요. 선생님 두 분의 얘기가 너무 차이가 나죠? 둘 다 똑같이 나는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한 선생님은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고 한 사람은 정말 그 분위기에 동화되어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한 거죠. 하루에 한 번씩 받아쓰기하고 그런다는게 누가 그 사람을 대표로 시켜주겠어요? 그것은 정말 자기가 함께 있는 아이들과 충분히 공감하고 그 세계로 들어가서 아이들과 생활하는 모습이지요.

나미 저는 또 이런 사람과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게 감사한데요, 그분은 지금은 방과후보육을 하고 있는 분인데요. 예전에는 어린이집에 근무했어요. 그러다 그 곳을 다니는 아이들이 커서 초등학교가 되니까 방과후 보육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그냥 주육 키운 거죠. 그 아이들이 근처의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시간이 되면 아이들을 맞이하러 학교로 간대요. 공부방에 앉아서 아이들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물론 아이들이 많지 않아서도 가능하겠지만 학교 앞으로 찾아가면 아이들이 저만치서 선생님을 발견하면 너무 좋아서 - 요즘은 엄마들도 마중 별로 안 가잖아요? "선생님!" 하고 부르면서 달려와서 안긴대요. 저는 그 장면만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에게만 사랑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선생님은 혼자 살고 있는데 주말에 동네 아이들이 자기 집 앞에서 놀고 있으면 "밥은 먹었나?" 하면서 자기 집에 데려가서 라면도 먹이고 그런대요. 사실 보육교사들이 주중에 하루 종일 아이들한테 시달려서 주말에 굉장히 쉬고 싶잖아요. 이 선생님은 휴일에 자기 집을 개방해서 동네 아이들과 자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아이들이라도 맞이하는 그 마음에 감동을 느꼈어요.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정말 감동의 물결이군요.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고 또 그것을 옆에서 보면서 배우고자 하는 선생님들이 많기에 우리에게도 보다 나은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 세엿... 그래도 버려야 할 우리의 모습들.....

우리들의 버려야 할 모습에 대해 양심선언(?)을 해 주신 분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지면권계상 모자이크 처리를 할

수도 없고 음성 변조는 더더욱 할 수 없고, 선생님들이 쓰는 별칭은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알기 때문에 그 날 먹은 음식들을 별칭으로 붙여 소개합니다.

상주 예전에 제가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원에서 공부할 때였어요. 수업 일정 중에 보육현장 탐방이라는 것이 있었죠. 교육원에서 지정해 준 시설에 가서 현장보육교사도 만나고 시설도 둘러보고 하는 일종의 참관 수업이랄 수 있어요.

그래서 간 곳이 국공립 어린이집이었어요. 그 때만 해도 영아보육이 생겨난 지 얼마 안되던 때라 저는 영아보육교사와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런데 영아보육교사라는 사람이 자기네 반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영아들과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는데 저는 그 사람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 사람 얼굴과 손톱만 봤어요. 얼굴은 진하게 화장을 하고 손톱은 길어서 메니큐어가 발라져 있더라구요. 순간 저는 아이들과 하루 종일 안고 씻기고 먹이며 생활하는 보육교사가 어떻게 저렇게 곱게 화장하고 게다가 길다란 손톱에 메니큐어까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손님(교육원생들)이 온다니까 꾸밈을 수도 있지만 긴 손톱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 손톱으로 아이들 기저귀 갈다가 똥이라도 끼면, 아이 몸에 상처라도 내면... 하는 생각이 들어 아주 불안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저는 손톱을 짧게 깎아요.

죽말 나는 아이들한테는 '인사를 잘 해라, 고맙다 라고 해야지, 미안하다고 해야지' 하고 얘기하면서 정작 자기는 절대 그 말을 안 하는 사람은 보육교사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침에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들어오면서 인사를 하는데 어쩌다 한 아이가 인사를 안 하면 쫓아가서라도 인사를 하게 하면서 정작 자기가 실수했을 때는 그냥 슬쩍 넘어가요. 아마 권위위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선생님, 그거 틀렸잖아요?' 하면 미안하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지'라며 넘어가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면 권위가 상실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존경받고자 하면서 과연 우리는 아이들을 얼마나 존중해 줬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파전 저는 미술학원에서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는데 5세반 30명 아이들을 한 선생님이 담당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선생님의 보조를 했지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50cm짜리 자를 들고 다니면서 아이들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다른데도 아니고 머리를.... 저는 세벌은 정말 반대해요.

국수 나는 아이가 똥을 쌌을 때 고무장갑을 끼고 아이엉덩이를 닦아주는 것을 반대해요. 아이를 키워봐서 그런지 우리 얘기 톤도 예뻐요. 그런데 더럽다며 고무장갑을 끼고 닦는다는 것은....

죽말 어린이집에서 아이의 변을 씻기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견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뉘손으로 닦아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위생장갑을 끼고 닦아야 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손에 위생장갑을 끼는 것은 보육교사의 그 손으로 아이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안아도 주고 하기 때문에, 또 혹시 똥이 덜 닦여서 다른 아이에게 균이 전염될지도 모른다는 위생에 대해 염려해서이기도 해요. 아무튼 이 문제는 다른 사람들과도 토론해 봤으면 좋겠어요.

상주 그렇지만 특히 영아보육교사라면 아이가 똥을 어떤 색을 썼는지, 똥에 무엇이 나왔는지 등등 아이의 변을 해집고 관찰은 못하더라도 똥이 더럽기 때문에 자기 손에 안 묻히려고 고무장갑을 낀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행동이네요. 나도 처음 보육교사 할 때는 고무장갑을 꼈었는데 그 느낌이 까끌까끌하고 차가워서 댄 살에 닿으면 기분이 안 좋다는 것을 알고는 뉘손으로 닦아주는데.... 고무장갑사이 틈에 똥 끼는 게 더 비위생적이잖아요.

미늘 어느 집 아이가 선생님이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왜 무섭냐고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기저귀를 채워주겠다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보통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위험적인 얘기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영아반에 보내겠다 라든가, 널 안 데리고 가겠다 라든가, 기저귀를 채우겠다, 간식 안 먹으면 나가라는 등, 우리끼리 놀겠다 등... 사실은 그런 얘기들을 어린이집에서 종종 하고 있고 그게 안 좋다는 것도 아는데, 실제로 그 말들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나는 어른이고 너는 아이이기 때문에 내 말을 안 들으면 너희에게 그렇게 하겠다 것이지요.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너무나 크게 와 닿는 것 같아요.

왜 내가 그 얘기에 놀랐었나 하면 선생님들이 하는 언어의 위협이 내가 생각했던 거보다 그 아이에게는 너무나 인상 깊게 들렸다는 거지요. 그것이 듣기 싫은 말일 수도 있고... 우리 어른들끼리 얘기 할 때는 듣기 싫은 소리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싫다고 그런데 보육교사와 아이의 관계는 이상하게 보육교사가 우위라는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만날 때 그것이 영아이든 유아이든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내는 것보다 그게 더 위협적일 수 - 낮은 소리임에도 -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그게 참 안 되더라구요. 직행(?)으로 통하는 효과를 생각하다보니깐....

죽말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 그냥 나서기 좋아하는 거면 문제가 없는데 자기가 담임도 아니면서 자기가 아는 부모가 오면 뛰어나와 가지고 부모에게 아이가 오늘 하루 어땠다 저했다고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리 그 부모하고 친하더라도 담임이 있는데 미리 먼저 나서는 건 월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얘기를 전달하려면 잘 전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오해를 만들기도 해요. 아이를 돌보는 것은 내 아이, 남의 아이 가리지 말아야겠지만 부모 상담 등은 담임에게 맡겨야지요. 자기가 간섭하는 것은 다른 보육교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국수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아침에 조출해서 아이들은 놀게 하고 자기는 TV켜 놓고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간식 시간에 신문보고.... 그러다 안전사고가 나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근무를 시작했으면 그 시간부터는 아이들과 함께 해야지 어떻게 성인용 드라마를 볼 수 있냐요? 요즘은 이런 보육교사는 없을 거예요.

죽말 나도 또 생각났는데 스승의 날 몇일 전에 아이들에게 자기가 받고 싶은 것을 얘기해서 은근히 사오라고 압력을 넣는 사람, 받은 선물 늘어놓고 품평회 하는 사람, 개인적인 일(연애문제 등)로 3일 동안 무단 결근하는 무책임한 사람, 감정조절을 못해서 애들 앞에서 어른끼리 싸우는 보육교사 등등 이것저것

따져보니 버려야 할 모습이 좀 있네요.

국수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보육교사를 하면서 너무 지쳐서 다시는 보육교사를 하고 싶지 않대요. 그러면서도 또다시 배운 게 이것밖에 없다고 고민을 해요.

성수 저는 배운 게 이것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또 보육교사를 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그 사람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동료에게도 하나도 좋을 게 없어요. 우리 보육교사들도 앞에서 누군가가 즐겁게 신나게 일 하면 그걸 보면서 또 힘을 얻는데 늘 앞에서 지치고 지겹다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힘 빠지게 하는 거예요. 돈 때문이라면 차라리 다른 일을 택해야지요. 어디 가서 일 하면 보육교사만큼 못 받겠어요?

국수 그래도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건 부정할 순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게 하고 또 보육교사를 하면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를 알려줘야겠지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어머, 저건 내 모습이었어' 하며 반성하기도 하고 '세상에 무슨 그런 사람이 보육교사야, 그런 사람은 자격을 없애야 해!' 하며 흥분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보육하는 사람치고 이런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간혹 이런 사람들이 보육물을 흐리지 않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보육교사로서의 내 삶에 많은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아해아 어린이집의 보육일기

아래의 글은 해아해아 어린이집 씩씩한반의 보육활동을 일기 형식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씩씩한반 >> 이해수(7세) 서정주(5세) 이채윤(5세) 정온비(5세)

1. 어린이집 생활과 놀이

3월의 적응 기간을 거치면서 서로가 정한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지만 아이라는 본성상 놀잇감을 나눠 쓰고 재미있는 책을 함께 보는 게 되지 않아 싸우고 일러주고 울기가 일쑤이다.

때로는 금기사항을 시도해보다가 아단도 맞는 등 이동 수는 몇 명 안 되면서도 매일 매일이 마치 전쟁과 같다.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똑같은 수준과 행동을 보여 언니인지, 동생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 보육교사들이 입을 모을 때도 많지만 요사이 해수는 자발적으로 동생들 낮잠 시간에 들어가 책을 읽어주면서 동생들 낮잠을 재워 씩씩한반 제일 큰언니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그뿐 아니라 시장나들이를 다녀 올 때 힘든 리어카를 끌고 오기도 하고 거실 걸레질, 오후 간식 준비도 도와주면서 보조교사 노릇을 한다.

한편 해수는 또래가 없어 심심해한다. 그러면서 5살 동생들에게 대장노릇을 하며 놀고 싶은데 동생들이 말을 잘 안 들으면 한번씩 말 안 듣는 동생에게 '안 놀아 주기로 동생들 속을 태우기도 하고, 때로는 선생님들이 하는 어투로 '잔소리'를 해대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해수는 채윤이가 예전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해수를 잘 따르기에 채윤이랑 잘 놀고, 정주와 온비는 이전의 친분과 온비의 카리스마(?)로 둘이서 잘 논다.

해수와 채윤이는 나이 차도 있고 워낙 오랜 세월을 함께 해서 싸우더라도 서로에게 맞춰 주는 부분이 있어 싸우면서도 잘 논다.

한편 온비와 정주는 둘이 뭉쳐서 사고(?)를 잘 친다. 방안에 로션을 갖고 들어가 한 통을 다 써서 머리에 온통 바르기도 하고, 벽지에다 그림을 그리고, 맥주병을 가지고 놀다 깨는 등 혼자서는 못하는 행동을 서로의 힘을 빌려 함께 한다.

아이의 본성상 그것들이 모두다 놀이라고 생각하지만 해서는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하지 못

한 채 이것저것 시도 또는 실험해 보는 것 같아 몇 차례 혼이 나기도 했다.

씩씩한반 아이들이 비록 네 명밖에 안되지만 (해야해야 어린이집은 지난 3월에 개원한 어린이집입니다.) 모두들 개성이 강하다. 그래서 다같이 네 명에서 노는 모습은 보기가 힘들고 재미난 반 동생들과 섞여서 생활하다보니 언니라는 인식보다 '동생은 하는데 나는 왜 못해?'라는 인식이 강해 동생들과 똑같이 대해줄기를 원하는 것 같다.

5월에는 씩씩한반 끼리만 나들이도 가고 활동도 하면서 재미난 반과의 분리된 시간을 가져줘야겠다. 그러면서 씩씩한반 끼리의 결속력도 다지고 언니로서의 특권도 누리보면서 언니라는 위치가 결코 나쁘지 않음을 느끼게 해줘야겠다.

2. 매일의 나들이와 '봄에 피는 꽃' 주제 활동

매일의 나들이 장소는 시장, 공원, 놀이터, 뒷산이었다.

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나들이를 나가면 어디든지 들꽃들이 피어있고 뒷산에 가면 쑥, 들나물 등 봄나물도 지천으로 나 있었다.

들꽃 책을 나들이 때마다 들고 나가 모양, 색깔에 따라 꽃 이름도 찾아보고 들꽃을 꺾어 책 사이에 끼어왔다.

글자를 아는 해수만 '쉽게 찾는 우리 꽃-봄편'을 제대로 들고 나머지 까막눈들은 '여름편' '나비책'들을 들고 나갔지만 새로운 꽃이 보일 때마다 책을 펼쳐들고 찾는 진지함을 보여주었다.

그 뒤 꽃도감은 실내에서 그림책과 동등하게 취급되며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아는 꽃을 찾기도 하고 서로 가지고 보려는 베스트 셀러가 되기도 했다.

한번은 다름이 심해 책을 같이 보기 위해 극실에서 '꽃 퀴즈 대화'를 열었다. 퀴즈의 형식과 방법을 가르쳐 주었지만 5세들은 익숙지 않아 해수만 신이 나서 한동안 틈만 나면 꽃 퀴즈 대화를 하자고 했다.

동생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답을 거의 알려주는 식으로 문제를 내어도 맞추지 못하는 것을 보며 앞으로 수수께끼 놀이도 하고 끝말잇기도 해서 연상 활동을 많이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나들이에서 채집한 꽃들은 말려서 꽃액자를 만들고 욕상에 핀 꽃들을 하나씩만 꺾어 표본을 만들어 벽에 붙여놓았다.

그러면서 모두들 들꽃 별명을 하나씩 짓자고 하나씩 해수는 '별꽃', 온비는 '제비꽃', 정주는 '민들레', 채운이는 '개불알꽃'으로 정해 서로 꽃 이름을 불러주기도 했다.



개불알꽃

나들이에서 여러 번 쑥을 캐서 쑥국도 끓여 먹고 쑥버무리 요리 활동도 하고, 유채꽃, 대추, 쪽으로 모양을 낸 화전 만들기도 했다.

들나물을 캐어서 초고추장에 무쳐 먹고, 민들레 잎으로 샐러드 해서 먹어보기도 했는데 평소 아이들 입맛에 맞지 않은 씹싸르한 맛이었지만 나들이에서 직접 캐온 것이라 다들 맛있다고 잘 먹었다.

나들이에서 캐온 질경이로 효소도 담귀 가을이 되면 차를 끓여 먹기로 했다.

3. 그 외 활동

★ 미술활동 - 점토 놀이

맨 처음 찰흙 만들기는 주물럭거리기는 수준이었고 두 번째 지점토로 만들기는 소꿉 만들기를 했다. 킥, 주전자, 사과, 바나나, 향아리 등 다양한 모양들이 나왔고 그걸 물감 칠하고 락카까지 뿌리고 나니 알록달록 예뻐서 아이들이 잘 가지고 놀았다. 단 한가지 흠은 잘 깨진다는 것. 그걸 보완하기 위해 신문지를 잘게 찢어 밀가루 풀과 섞어서 종이죽을 만든 후 소꿉을 만들고 마른 뒤에 한지를 붙여 모양을 냈다.

점토 놀이는 모두가 좋아하는 활동으로 일회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씩 점점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짐을 느낄 수 있었다.

★ 춤동배우기 - 물리, 뒷산 댕은 모랭이

마음대로 추는 게 아닌 정해진 동작을 따라서 한다는 게 어려웠지 처음엔 다들 시큰둥하더니 한달 정도하고 나니 이제 둘리 노래만 나오면 방과후 언니들도 합세할 정도다. 역시 아이들은 정적인 것보다 동적인 활동에 더 흥미를 느낄 수 있었다.

★ 텃밭가꾸기

두구동 화훼단지에서 고추, 방울토마토, 오이, 가지 모종을 사서 심었다.

모종을 잘못 다루어 오이가 부러지고 가지를 너무 깊게 심는 등 아직 농사일에 아이들도 어른들도 서툴다. 거기다 비둘기가 고추, 가지를 뽐아 모종 손실이 많기도 했다.

가끔 욕상에 가서 물도 주고 감자가 얼마만큼 자랐는지 보는데 모두 열심히다.

인터넷을 활용한 현장 교육사례

주제: 통일

아래의 글은 2001년 서울시여성기금을 지원 받아 실시한 인터넷활용 현장사례공모전 '인터넷에서 놀자'에 우수작으로 당선된 작품을 요약한 것입니다.

1. 주제 선정 이유

우리 나라 지도가 무엇과 닮았다고 묻는다면 사람들은 호랑이의 기상이 살아있는 모습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정확히 말하자면 호랑이의 몸통 위 부분은 우리 나라가 아니다. 우리 나라이면서 우리 나라가 아닌 나라가 바로 북한이다. 50년 이상 분단된 긴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통일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통일 나라'란 말이 단지 과거 역사 속에 있었던 일로 서 화석처럼 남을지 아니면 미래를 보는 예언자의 말씀일지는 어른 뿐 아니라 자라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달려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아기 때부터 북한이라는 나라에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통일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가치관과 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유아기 때 올바른 가치형성이 중요함에도 유아들 대상으로 한 통일 교재, 교구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던 중 한국보육교사회에서 보낸 준 '인터넷 길라잡이'란 책을 통해서 통일을 주제로 활동하기에 좋은 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인터넷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교육 활동에 보았다.

2. 컴퓨터 영역 운영

컴퓨터 영역은 소음이 심한 뿔기, 소꿉영역과 떨어져 비교적 조용한 과학영역에서 가까운 곳에 구성하였다. 교실에 컴퓨터 2대, 칼라 프린터 1대(유아 정원 19명)가 있으며 교실 구조상 2대의 컴퓨터가 서로 뒷면이 맞닿도록 되어있는 폐쇄 구조이다. 구조상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1대의 컴퓨터 2개의 의자를 놓아 유아들끼리 서로 화면을 보면서 상호작용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프린터 공유기를 사용해 양 쪽 컴퓨터에서 인쇄가 자유로워졌다. 본 어린이집의 컴퓨터 기종은 586 pentium III이며 인터넷

접속방법은 한국통신 ADSL(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을 이용하고 있다. 학습 주제와 관련하여 한 대의 컴퓨터는 CD-ROM 타이틀을 사용하고 다른 한 대는 인터넷 검색을 사용하고 있으나 항상 고정적이지 않고 유연성 있게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주제와 연관된 CD-ROM 타이틀이 없을 경우 인터넷으로 확장하고 주제에 적절한 인터넷 사이트가 없는 경우 CD-ROM 타이틀로 확장해 사용하는 것이다. 학기 초에 컴퓨터 사용 시간 규칙을 정한 후 바늘을 움직일 수 있는 모형시계와 사용 가능한 시계를 놓아주어 스스로 활동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3월 4주부터 인터넷을 활용한 보육활동을 시작했으며 검색엔진으로 야후(<http://kr.yahoo.com>)와 야후!꾸러기(<http://kr.kids.yahoo.com>)를 사용하고 있다. 인터넷 접속 시 한국통신에 암호와 password 입력이 필요하여 문자를 모르는 유아의 경우 스스로 접속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래서 스스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인터넷 사용방법'을 제작 해 제공하고 키보드에 색깔로 표시하였다.

3. 인터넷 보육 활동 시 사전 준비

1) 핵심 사이트와 개별 사이트 정하기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보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첫 번째 단계는 좋은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한 사이트 검색이다.

야후(<http://kr.yahoo.com>), 야후!꾸러기(<http://kr.kids.yahoo.com>) 검색엔진으로 통일, 북한을 검색 해 나온 사이트 중에서 교사가 계획한 활동과 연계해 통합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그림, 동영상도 풍부해 반 전체 유아의 흥미와 수준에 적합한 사이트는 핵심 사이트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핵심 사이트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전체 내용이 유아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다. 사이트 메뉴 중 그림, 사진 애니메이션과 같이 유아에게 매력적이고 교사가 계획한 교수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만 선택 해 사이트 활동지를 만들어 제공하였다.

그러나 유아들 사이에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개별 유아의 발달 수준과 흥미에 맞추어 자유롭게 사이트를 검색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개별 사이트를 예상해야 된다. 교사가 개별 사이트를 미리 예상해야 되는 이유는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개별 사이트를 방문한 유아와 질 높은 상호작용을 해 줄 수 있고 핵심 사이트를 충분히 활동한 유아들이 주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자의 역할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을 주제로 전체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선정 한 핵심 사이트 다음 <표 1>와 같다.

핵심사이트	주요 메뉴	유아 활용 메뉴
통일꿈나무 http://www.uniedu.go.kr/kid	○ 통일만화마을 : 통일과 관련한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다. ○ 통일학교 : 통일관련 이론 강의 ○ 북한애니메이션 : 북한에서 제작 된 4편의 애니메이션 ○ 북한어린이생활 : 학교생활, 일상생활에 대한 질의 응답, 남북한 언어 비교 ○ 평양으로의 여행 : 평양 시내 지도가 애니메이션으로 꾸며져 있으며 건물을 클릭하면 사진 볼 수 있음 ○ 통일독일 이야기 : 통일 독일 이야기를 만화	통일만화마을 북한 어린이 생활 평양으로의 여행
남북어린이어깨동무 http://okedongmu.or.kr/	○ 평화교육 : 초등학교용 교안자료 ○ 그림누리 : 남과 북의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이 전시 ○ 함께 뛰놀 세상 : 북한 아이들의 생활, 통일책방, 다른 말 한 뜻 ○ 이어주기 : 평화와 통일에 대한 사이트를 소개	그림누리 함께 뛰놀 세상
통일이의 북한말 여행 http://my.netian.com/~holdall/	○ 명사에는 무엇이 있을까 : 하루일과 시간표로 아침식사, 수업 I, 수업 II, 점심, 일손들기, 놀기, 저녁 먹기, 생활정리를 클릭하면 명사 그림과 함께 남북한 언어 비교 ○ 동사와 형용사는 : 남한말 옆에 있는 물음표를 누르면 북한말이 나옴 ○ 속담풀이 : 속담이 나오면 마우스로 클릭하면 속담 뜻이 나옴	명사에는 무엇이 있을까 동사와 형용사는 속담풀이

* 통일 꿈나무 메뉴에서 북한애니메이션은 컴퓨터 버전 업이 필요해 사용하지 못 하였다.

'통일'을 주제로 개별 유아를 대상으로 선정 한 개별 사이트는 다음 <표 2>과 같다.

개별 사이트	인터넷 주소와 유아기 활용 가능 한 주요 메뉴
북한 나들이	http://www.outingkorea.com/north_korea/north_korea.htm ○ 북녘의 창 : 국기, 국가, 국화, 국경일 소개 ○ 관광 나시기 : 관광정책, 주요관광지, 예절, 편의시설 소개 ○ 북한말 한마디 : 남북한 말 비교, 속담 ○ 재미마을 : 북한음악듣기(realplay를 다운받아 설치해야 들을 수 있다)
북한말과 우리말	http://www.keris.or.kr/apply/vaca/1998s/tongil.html ○ 북한의 음식이름, 학용품이름, 동물, 식물, 탈것, 운동경기, 재미있는 말을 남한 말과 비교
해님과 함께 떠나는 북한여행	http://user.chollan.net/~phc0123/ ○ 북한 소개 : 행정구역, 돈과 은행, 외국어 교육, 국가, 스포츠, 환경오염, 교통, 화장품과 머리도양, 재관, 직장생활, 최고인민회의원 소개와 사진 ○ 북한문화재 : 북한 산 탐방, 문화재탐방, 사진으로 보는 북한
통일교실	http://210.119.114.5/union ○ 통일노래교실 : 통일에 대한 노래가 담겨 있다.
대한민국은 하나	http://my.dreamwiz.com/dnjsowowlw/ ○ 국기 비교 ○ 북한 알기 : 국기, 음식, 말, 속담, 놀이, 관광지
북한요리길라잡이	http://northfood.new21.net/ ○ 북한 요리, 요리 방법 소개
북한 음식점	모란각 (http://www.morangak.co.kr) 신영희의 진달래각 (http://www.jindalraegak.co.kr)
금강산	금강산 (http://korea.insights.co.kr/korean/north/nature/gum.html) ○ 금강산 소개 및 사진 제공 금강산 관광신문 (http://www.kumgang.co.kr) ○ 북한관련 동영상, 금강산 사진과 동영상

주간활동서

10월 2주

구분		요일	월	화	수	목	금
등원 및 맞이하기			주말 지낸 이야기 나누기 / 북한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				
실내 자유놀이	미술영역	태극기 그리기 —————> 통일 국기 그리기 —————>					
	소꿉영역	< —————> 북한 음식점 놀이 —————>					
	쌓기영역	< —————> 남북한을 잇는 기차길 구성하기 —————> 금강산 구성하기 —————> 북한전물 구성하기 —————>					
	언어영역	동화책: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예요, 금강산 꽃노래, 나무꾼과 선녀, 금강산 바위 이름, 금강산 지도책 / 동화 듣기: 선녀바위 읽기 교구: 통일 말하기: 선녀와 나무꾼 손가락 인형 쓰기: 통일이 되면 동시 짓기					
	수·조작영역	수세기: 대한 민국 방문하기 조작: 우리나라 막대 퍼즐 수량 더하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과학영역	< —————> 탄성 운동구 —————>					
	컴퓨터영역	인터넷 검색: 북한, 통일					
대·소집단활동		이야기 나누기 태극기	이야기 나누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되면 통일	소집단 토론 통일이 되면 좋은 점			
실외 자유놀이		낙하산 놀이 —————> 고무 밴드 당기기 —————>					
오후 실내자유놀이		언어) 북한, 통일에 대해 조사하기 —————> 북한 친구들에게 편지 쓰기 —————>					
기본생활습관		어린이집 물건 소중하게 다루기					

구분	요일	월	화	수	목	금
등원 및 맞이하기		주말 지낸 이야기 나누기 / 통일 우리나라이야기나누기				
실내 자유놀이	미술영역	< —————> 통일이 된 우리나라 그리기 —————> * 협동작품: 우리나라지도 콜라주				
	소꿉영역	< —————> 통일 어린이집(학교) —————>				
	쌓기영역	< —————> 통일 된 우리나라 구성 —————>				
	언어영역	동화책: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에요, 금강산 꽃노래, 나무꾼과 선녀, 금강산 바위 이름, 금강산 지도책 동화 듣기: 선녀바위 말하기·듣기 교구: 남한 말 북한 말 수수께끼 말하기 교구: 평양 여행 쓰기: 북한 친구와 내 모습 비교하기				
	수·조작영역	조작: 우리나라 지도 퍼즐 수 더하기·빼기: 북한 어린이와 사랑을 나누어요 방향, 수세기: 평양으로의 여행				
	과학영역	< —————> 양팔 저울로 무게 재기 —————>				
컴퓨터영역		인터넷 검색: 북한, 통일 통일 노래 듣기				
대·소집단활동		이야기 나누기 통일을 위한 우리 노력	새 노래 배우기 우리의 소원은	이야기 나누기 * 북한 친구들	* 게임 북한 친구와 손잡기	시창각 교육 배고픈 북한어린이를 도와요
실외 자유놀이		남북어린이 평화그림전 관람 북한 아이들 놀이 해 보기				
오후 실내자유놀이		조작) 우리나라 지도 바느질하기 —————>				
기본생활습관		바른 말 고운 말 사용하기				

- 이야기 나누기: 북한 친구들: 북한어린이의 생활과 놀이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 게임: 북한 친구와 손잡기: 두명 유아가 북한친구인형의 손을 잡고 반환점 돌아오기
- 방향·수세기: 평양으로의 여행: 통일꿈나무 사이트에서 매뉴 평양으로의 여행의 그림을 확대복사하여 방향·수세기 관련된 교구를 만들 수 있었다.

♥ 배고픈 북한어린이를 도와요 - 한국이웃사랑회(www.lovemeal.or.kr)에서 하는 사랑의 저금통 활동이다. 이야기나누기활동으로 비디오자료를 제공한다. 사랑의 저금통을 모아 북한 뿐 아니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 사는 배고픈 아이들을 돕는다. '통일'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세계여러나라 주제'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었다.

4. '통일' 활동 전개 과정

1) 주제의 시작

우리나라의 전통 생활과 문화에 대한 주제를 마친 후 우리나라의 현재의 모습을 살펴 보면서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진 분단 현실과 통일에 관심을 느끼도록 하였다. 통일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 자료로 한국 어린이육영회에서 출판된 '우리의 소원은 통일' 동화를 사용하며 이야기 나누기 해 보았다. 북한에 관심 갖기로 시작해 통일된 나라를 상상해 보는 것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2) 본 활동

북한 음식점 놀이

활동 목표 >> 북한 음식에 관심을 갖는다.

인터넷으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공간 구성 >> 소꿉영역

인터넷 사이트 >> 북한요리길라잡이 (<http://northfood.new21.net/>)

모란각 (<http://www.morangak.co.kr/>)

신영희의 진달래각 (<http://www.jindalraegak.co.kr/>)

활동 방법 >>

(1) 인터넷 사이트에서 북한 음식을 검색한다.

- 요리의 종류 알아보기
- 요리재료와 조리 방법을 알아보기

(2) 북한 음식 사진을 출력해 음식 메뉴판을 만든다.

(3) 북한 음식점 놀이에 필요한 역할을 정한다.

- 요리사, 계산하는 사람, 배달하는 사람

(4) 놀이에 필요한 소품을 만든다.

- 간판, 가게 문, 계산 책상, 계산기, 영수증, 홍보용지 등

(5) 가게 문을 열고 음식점 놀이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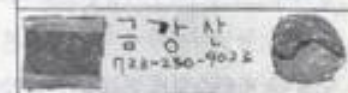
- 음식 주문 받기
- 음식 만들어 차리기
- 손님이 계산하면 영수증 주기



음식메뉴판



북한 음식점 - 금강산 내부 모습



음식점 홍보지

금강산 만들기

활동 목표 >>

북한에 있는 산에 관심을 갖는다.

통일 후 금강산에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을 생각한다.

금강산의 모습을 블록으로 구성할 수 있다.

안정감과 균형을 고려하여 산을 구성할 수 있다.

공간 구성 >>

쌓기 영역

인터넷 사이트 >>

야후! 푸러기 (<http://kr.kids.yahoo.com>) 로 금강산 검색

금강산 (<http://korea.insights.co.kr/korean/north/nature/gum.html>)

금강산 관광신문 (<http://www.kumgang.co.kr>)

야후! 푸러기로 통일 검색

해남이와 함께 마나는 북한 여행 (<http://user.chollan.net/~phc0123/>)

활동 방법 >>

(1) 비디오 Tape '유홍준과 고은의 금강산 답사기', 육영희 동화책 '우리 금강산 이야기' 1-4권, 인터넷을 통하여 금강산을 알아보고 금강산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 금강산의 모습이 어때니?
- 금강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니?
- 무엇으로 금강산을 만들면 좋을까?
- 연못이나 폭포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2) 단위 블록, 카프카 블록, 파란 형질 등을 사용하여 금강산을 구성한다.

(3) 통일이 되면 금강산을 어떻게 갈 수 있을지 교통수단을 구성해 본다.

- 통일이 되면 무엇을 타고 금강산에 갈 수 있겠니?
- 교통기관이 다니는 길을 어떻게 만들까?

(4) 사람, 자동차, 기차 소품을 가지고 극 놀이한다.

- 금강산으로 여행 가기



금강산 가는길 만들기

북한에 대해 조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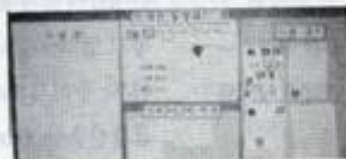
활동 목표 >> 인터넷으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북한에 대해 알아본다.

공간 구성 >> 언어 영역

인터넷 사이트 >> <http://kr.kids.yahoo.com/> 검색어: 북한

활동 방법 >>

- (1) 인터넷으로 북한을 검색 해 알아보고 싶은 내용을 인쇄하거나 조사 종이에 적는다.
- (2) 조사한 내용을 언어 영역 벽면에 있는 '북한'에 붙인다.



북한 조사

북한 친구모습과 내 모습 닮은 점 찾기

활동 목표 >> 한 민족임을 안다.

북한 어린이에게 친밀감을 가진다.

공간 구성 >> 컴퓨터 영역

인터넷 사이트 >> 남북어린이어깨동무 (<http://okedongmu.or.kr/>)

활동 방법 >>

- (1) 인터넷 사이트 남북어린이어깨동무의 하위 메뉴 중 그림누리에 가서 북녘 친구들의 그림을 본다.
- (2) 활동지에 나와 닮은 북한 어린이의 모습을 그리고 어떤 부분이 닮았는지 써 본다.



얼굴 모습 닮은 점 찾기

통일 학교(어린이집) 놀이

활동 목표 >> 통일의 필요성을 느낀다.

통일 된 모습을 예상하고 극놀이 할 수 있다.

공간 구성 >> 소꿉 영역

인터넷 사이트 >> <http://kr.kids.yahoo.com/> 검색어: 북한

활동 방법 >>

- (1) 학교(어린이집) 이름, 교사, 학생, 학생 나이를 정한다.

남한에서 살던 어린이, 북한에서 살던 어린이 역할을 정한다.

- (2) 통일학교에서는 어떤 것을 가르칠지 정한다.

- (3) 극 놀이를 한다.

- 금강산으로 소풍가기
- 통일 국가 그려보기
- 북한 말과 남한 말 배워보기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한 교구 제작

교구명 >> 북한 말 남한 말 수수께끼 카드

활동 목표 >> 남·북한 말을 비교 해 본다.

통일을 위한 노력으로 북한에 대해 알아본다.

제작 방법 >> ① 인터넷 사이트 통일이의 북한 말 여행 (<http://my.netian.com/com/~holdall/>)에서 메뉴 중 명사를 선택하여 필요한 부분을 프린트한다.

② 프린트 한 그림과 글자로 수수께끼 카드를 만든다.

공간 구성 >> 언어 영역

인터넷 사이트 >> <http://kr.kids.yahoo.com/> 검색어: 북한

활동 방법 >>

- (1) 교구를 소개한다.

- 지역마다 말이 조금씩 다를 수 있음을 설명하기
- 북한과는 오랫동안 서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의 말 뜻을 모르는 경우가 생김을 이야기 나누기
- 남한과 다른 북한 말을 모르고 북한 사람과 만났을 때 의사 소통의 어려움 이야기 나누기

- (2) 교구를 가지고 활동한다.

- 술래가 남한 말로 단어를 말하면 북한 말로 대답하기
- 또는 술래가 북한 말로 물으면 남한 말로 대답하기



교구 세트

평양 여행

활동 목표 >> 북한의 수도 평양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창의적으로 이야기를 꾸밀 수 있다.

제작 방법>

- ① 인터넷사이트 통일꿈나무 (<http://www.uniedu.go.kr/kid>)에서 평양으로의 여행을 인쇄해 확대 칼라 복사를 한다.
- ② 아크릴 판에 인쇄한 그림을 붙인다.
- ③ 말(자동차, 기차, 사람 등) 밑에 자석을 붙인다. 자석 막대를 만든다.
(주의사항: N극과 S극이 만나도록 함)

활동 방법>

- (1) 아크릴 판 위에 말(자동차, 기차, 사람)을 올려놓고 판 밑에서 자석 막대를 움직여 '평양 여행' 이야기를 꾸며 본다.

비고>

- 자석으로 조작한다는 것에 흥미를 느꼈으며 활동하면서 '통일이 되는 날이야. 통일이 되었으니까 막 다닐 수 있어. 또는 남한의 건물과 비교해 '나 여기(만경대 유화장) 놀이공원 가 본 적 있어요' 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통일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 확대 복사 한 사이즈를 다시 확대복사(A3 크기)해 수세기 또는 위치와 방향 과 관련된 게임으로 제작해 사용 할 수도 있다.



평양 여행

3) 마무리

통일이 되면 좋은 점 이야기 나누기

활동 목표>

- 통일의 필요성을 느낀다.
-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한다.

활동 방법>

- (1) 소그룹(4-5명)으로 모여 '통일이 되면 좋은점'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면서 종이에 기록한다.
- (2) 대집단으로 모여 각 소그룹에서 나온 생각을 발표한다.



통일이 되면 좋은점

통일을 위한 노력 이야기 나누기

활동 목표>

- 통일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안다.

활동 방법>

- (1) 대집단으로 모여 앉아 통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이야기 나누다.
-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져 있으니 어떤 점이 불편하니?
- 통일이 되면 좋은 점은 무엇일까?
-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 (2) 교사는 유아들의 생각을 정리해 칠판에 적는다.
- (3) 유아들의 생각을 모은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함께 읽어본다.
'우리의 소원' 노래를 함께 불러보며 마무리한다.



통일이 되면 좋은점

부모와 함께 하는 상호작용 활동지

활동 목표>

- 부모는 어린이집의 교육 내용을 이해하고 유아와 상호 작용하는 기술을 습득한다.
- 유아는 경험을 회상해 본다.

활동 방법>

- 가정으로 활동지를 보내어 부모와 유아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한다.

주제: 통일

2001. 10. 11

초록반 이름: _____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통일을 주제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통일은 유아들에게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보았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북한과 통일을 알아보면서 소꿉 영역에서는 북한 음식점놀이, 발기 영역에서는 남북한의 건물, 금강산, 통일기차 구성하기 등의 활동을 했으며 북한 친구들에게 편지도 쓰고 통일 나라 국기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유아들이 자라나 통일 세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유아의 대답을 적어 주시면 좋고, 편하게 이야기만 나누어 보아도 괜찮습니다. 기록하셨을 경우 어린이집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상호작용의 예 -

부모: ○○아, 우리나라 지도를 본 적 있지.

유아:

부모: 예전에는 우리 나라였지만 지금은 우리 마을대로 갈 수 없는 나라가 있단다. 그 나라 이름을 알고 있니?

유아:

부모: 그래, 북한이라고 불러. 북한과 남한은 원래는 한 나라였는데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단다. 나라가 나누어지는 것을 어려운 말로는 '분단' 이라고 해.

부모: 그런데 왜 하나였던 나라가 나누어졌을까?

유아:

부모: ○○은 (유아가 한 말을 반복) 그렇게 생각했구나. (사람들의 생각이 서로 달라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 수

가 없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부모: 그런데 ○○아, 통일은 어떤 뜻일까?

유아:

부모: (유아가 한 말을 수용 해주세요) ○○가 통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구나. 통일이란 생각이 서로 다른 나라가 하나의 나라로 합쳐지는 것이란다. 남한과 북한이 합쳐져 하나의 나라가 되는 거지.

부모: 그런데 통일이 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

유아:

부모: 통일이 되면 (유아가 한 말을 반복) - 한 집에서 좋아지는구나.

(부모님의 생각도 이야기 해 주세요)

엄마(아빠)는 통일이 되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말한 것처럼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더 좋아지는데 어떻게 통일이 될 수 있을까?

유아:

부모: (유아의 말을 수용) 그런 방법이 있겠네. 또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한 사람은 북한 사람들의 알아가고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을 알아가면서 서로 친해지고 다른 생각을 비슷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단다.

○○는 북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니?

(북한 말, 음식, 놀이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유아:

부모: 북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구나.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놀이를 해 보았니?

어떻게 놀이를 했니?

유아:

부모: 와!!! (격려하는 말을 해주세요. "멋지게 했구나" 등)

우리 모두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날이 올 거야.

• 통일 관련 행사 안내 •

남북어린이 어깨동무 평화 그림 전 개막식 및 축하행사

일시: 2001.10.14(일) 17:00 ~ 19:00

장소: 광화문 시민 열린 마당

문의: 어깨동무 사무실: 743-7941-2

<http://okedongmu.or.kr/>

4. 평가

유아들이 북한도 우리 민족임을 알고 통일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주제를 통일로 선정했으나 교실 전 영역에서 유아 수준에 알맞은 활동으로 전개하기에 교수자료가 부족했으며 통일에 대한 교사의 인식 역시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인터넷을 활용한 보육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인터넷으로 북한과 통일에 대한 글, 사진, 음악, 동영상, 애니메이션과 같은 멀티미디어로 경험하면서 주제에 흥미를 느끼고 활동에 참여하는 동기유발이 되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알아 본 정보를 바탕으로 블록, 소꿉(역할), 미술, 언어와 같은 흥미영역에서 활발히 놀이함으로써 지식을 능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었다.

인터넷을 활용한 보육활동의 장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놀이 활동 영역과의 연계성이다. 인터넷의 정보는 거미줄처럼 놀이 활동 영역과 연결되어 놀이가 더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이루어지고 확장될 수 있도록 촉진시켰다.

둘째, 경제성이다. 교사는 가만히 앉아서 많은 양의 정보를 쉽고 빠르게 무료(저렴한 비용)로 수집할 수 있었다. 또한 그림을 프린터해서 교수자료를 만들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이 줄어들었으며 새로운 교수자료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었다.

셋째, 신속성이다. 인터넷을 이용하기전 유아들이 궁금한 것을 질문할 경우 교사가 모르고 있거나 교실(기관) 내 책이 없는 경우 바로 해결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궁금한 것을 그 자리에서 신속하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넷째, 유아들의 자긍심 향상이다. 인터넷 정보 앞에서 교사와 유아는 모두가 학습자의 위치이다. 교사가 모르고 있던 새로운 사이트를 찾았을 때 유아의 얼굴에 나타나는 특이양양한 표정, 자신이 발견한 정보를 다른 유아에게 알려줄 때의 뿌듯한 표정을 통해 유아의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터넷을 활용한 보육활동은 장점 뿐 아니라 제한점도 가지고 있다.

첫째, 유아에게 적합한 사이트를 찾기 위한 사이트 검색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책과 달리 인터넷은 디지털로 정보 갱신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사이트 관리자의 사정에 따라서 폐쇄되기도 하기 때문에 주제별 연간 사이트 모음을 작성했다더라도 다음 년도에 그대로 활용 할 수는 없다.

둘째, 주제에 따라서 유아에게 적합한 사이트가 없는 경우도 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사이트도 유아보다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삼은 것이 많다.

셋째, 유아들의 인터넷 사전경험에 따른 활용 능력의 차이로 인한 어려운 점이다. 가정에 인터넷 환경이 제공되지 않은 유아의 경우 성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사가 다른 영역의 유아들과 활동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한 교실에 교사가 한 명인 경우 인터넷 경험이 풍부한 유아들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넷째, 인터넷 사이트가 사진, 동영상, 애니메이션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글자에 호기심을 가지고 친숙한 단어는 읽을 수 있는 유아들에게는 매력적이지만 그렇지 못한 유아의 경우 활동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한정적이다(애니메이션, 동화 듣기, 게임, 마우스 조작 활동(예: 옷 입히기, 색칠하기) 등).

다섯째, 인터넷 접속 여부와 사이트 loading 속도이다. 인터넷에 접속에 안되거나 불안정 할 때가 있으며 사이트에 따라 loading 시간이 긴 경우 흥미가 감소된다.

유아기는 다양하고 직접적인 경험과 구체적인 학습자료로 탐색하면서 발달해간다. 컴퓨터 영역에서 인터넷으로 정보를 획득하는 것만으로는 유아기 발달에 적합하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없다. 인터넷을 활용한 보육활동을 진행하면서 하면서 인터넷과 놀이 영역이 연결되어 놀이 중심의 통합적 활동이 이루어질 때 유아의 지식, 태도, 기술을 능동적으로 구성한다는 것을 느꼈다.

5. 별첨

일일교육계획안의 예

2001년 10월 9일 (화)

주 제	하나 될 우리나라	
시 간	계 획	실 행
09:45	· 등원 및 맞이하기: 북한 친구 만나면 하고 싶은 말	과동
09:45-09:55	· 어린이 건강체조	10:05-10:15 · 간식(포도)
09:55-10:05	· 화장실 다녀오기 및 손 씻기	10:20-10:40 · 함께 모여 하루일과 계획하기
10:05-10:20	· 간식	· 이야기 나누기 (우리의 소원은 통일)
10:20-10:45	· 함께 모여 하루일과 계획하기 · 이야기 나누기 (우리의 소원은 통일) · 우리나라 지도 소개하기 · 통일의 뜻 이야기 나누기 · 동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에요」 들려주기 ·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 이야기 나누기 · 새 교구 소개	· 우리나라 지도 소개하기 · 우리나라의 북쪽을 북한, 남쪽을 남한이라고 부름 · 사람들의 생각이 서로 달라 생각이 비슷한 사람끼리 북한과 남한으로 모였는데 하나였던 나라가 2개의 나라로 나누어짐 · 통일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경험 나누기 · 동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에요」 들려주기 · 동화속에 나온 통일의 뜻 이야기하기 · 새 교구 소개하기
10:45-10:50	· 놀이계획하기	언어 교구: 통일
10:50-12:00	· 오전 실내 자유놀이 미술: 태극기 그리기 소꿉: 북한 음식점 놀이 발가: 남과 북을 이어주는 기차길 만들기 언어: 읽기(동화책: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에요, 금강산 꽃 노래, 나무꾼과 선녀, 금강산 바위 이름, 금강산 지도책 교구) 통일 듣기(선녀 바위 말하기) 태극기를 만들었어요(이야기 꾸미기 그림자료) 수 · 조작: 수세기) 대한민국 방문하기 모양변별) 우리나라 막대 퍼즐 컴퓨터: 북한, 통일 알아보기 사이트 <통일꿈나무> 활동지 첨가 http://www.uniedu.go.kr/kid · 화장실 다녀오기 및 정리 정돈	10:45-10:50 · 놀이계획하기 10:50-11:10 · 오전 실내 자유놀이 미술: 태극기 그리기, 나무젓가락으로 깃대 만들기 소꿉: 북한 음식점 놀이 · 인터넷에서 북한 음식 사진 출력하여 여제만든 메뉴판에다 새로운 음식 추가해 적기 · 단위블록으로 계산대 만들기, 종이에 계산대 숫자 표시 만들기, 종이에 영수증 만들기 · 가게 간판에 태극기, 인공기 꾸미기 · 요리사, 음식주문 및 나르기, 계산 액할 정하기 · 가게 문 열고 손님 받기 · 메뉴판 보고 음식 주문하기 · 벽에 붙여 놓은 재료 보면서 북한음식 만들기 발가: 남과 북을 이어주는 기차길 만들기 · 단위블록으로 우리나라 지도 외곽선 만들기 · 카르타 블록으로 남한과 북한을 연결하는 기차 상행선, 하행선 만들기 · 단위블록으로 기차 터널 만들기 · 기차여행 놀이하기

시 간	계 획	실 행
11:55-12:10	· 정리정돈	左同
12:10-12:20	· 화장실 다녀오기 및 손 씻기	인터넷: 통일꿈나무
12:30-13:10	· 점심/이웃기 후 휴식	· 통일 만화, '북한 어린이', '평양으로의 여행'에서 선택해 활동하기
13:10-14:20	· 오후 실내자유놀이 언어) 북한, 통일에 대해 조사하기	· 활동하면서 알아본 것, 생각한 것 활동지에 적어 보기 · 독감 예방 접종
14:20-14:35	· 정리정돈	12:20-12:30 · 정리정돈, 손 씻기
14:35-15:15	· 오후 실외자유놀이 고무밴드 당기기	12:30-13:20 · 점심(보리밥, 소고기미역국, 두부 양념조림, 시금치무침, 깍두기)
15:15-15:25	· 정리정돈	13:15-14:40 · 오후 실내자유놀이 언어 쓰기) 인터넷으로 북한에 대해 조사하기 (상징, 말, 음식, 놀이, 북한 어린이)
15:25-15:35	· 화장실 다녀오기 및 손 씻기	· 인터넷으로 북한에 대해 조사해 출력하거나 종이에 적기
15:35-16:00	· 놀이계획표 평가 및 휴식	· 조사한 것을 언어 영역 벽면 상징, 말, 음식, 놀이, 북한 어린이 목록 중 적절한 곳에 붙이기
16:00-16:10	· 손 씻기	소꿉: 오전과 동일하나 메뉴판에서 가격 조절하여 음식 팔기
16:10-16:20	· 간식	발가: 단위블록으로 우리나라 지도 만들기 (제주도, 일본도 만들)
16:20-16:35	· 귀가준비	· 단위블록으로 남북한을 잇는 철길 만들기
16:35-16:50	· 하루일과평가 및 귀가지도	· 자동차로 극놀이하기 지도 만든 것 정리한 후 북한에 한국 건물 만들기 · 인터넷으로 북한 지도 보기 · 삼성화재 북한 청진지점 만들기
		14:40-15:00 · 정리정돈
		15:00-15:40 · 우천으로 시청각 교육 금강산 답사기
		15:40-16:00 · 휴식
		과동
		16:10-16:20 · 간식(군만두)
		과동
비고	· 통일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를 할 때 통일이란 뜻을 알고 있는 유아는 1명밖에 없었고 4-5명은 각년에 들어는 봤으나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나머지 유아들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하였다. 유아들이 북한이라는 나라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반면 그 동안 통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및	· 통일 관련 사이트 중에서 <통일 꾸러기>가 유아들이 접근하기에 용이하여 중심 활동 사이트로 선정했다. 사이트 내용 중 우리만 유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목록을 뽑아 활동지를 만들어 조사하거나 생각한 점을 적어볼 수 있도록 하였다. <통일 꾸러기> 뿐 아니라 북한과 통일에 대한 사이트를 자유롭게 검색해 볼 수 있는 활동도 병행했다. 그 동안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해 와서 유아들이 스스로 자신에게 알맞은 사이트를 찾아 북한에 대해 알아보기도 하였다. 통일, 북한 노래를 들어볼 수 있는 사이트도 있어 유아들이 호기심을 보였으나 다음시간에 길어 활용할 수 없어서 아쉽다.	
평가	· 어제 인터넷에서 북한 인공기를 본 유아들이 인공기를 그려보고 싶어하여 인공기를 그려 가지고 놀이하는 활동이 벌써 어긋나지 않는지 통일부 사이트에 가서 문의했는데 인공기 그리기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당장 메일이 왔다. 아직까지 북한과 관련된 것은 민감하다.	

일 일 교 육 안

2001년 10월 11일(금)

주 제	하 나 필 우 리 나 라	
시 간	계 획	실 행
09:45	· 동원 및 맞이하기	과동
09:45-09:55	· 어린이 건강체조	10:05-10:15 · 간식(사과)
09:55-10:05	· 화장실 다녀오기 및 손 씻기	10:15-10:50 · 함께 모여 하루일과 계획하기
10:05-10:15	· 간식	* 소집단 이야기 나누기 활동
10:15-10:40	· 함께 모여 하루일과 계획하기	(통일이 되면 좋은 것)
	· 소집단 이야기 나누기	- 분단 별로 모여 통일이 되면 좋은 것 이야기 나누기
	(통일이 되면 좋은 것)	- 이야기 나온 내용 종이에 적기
	· 소집단으로 모여 이야기 나누기	- 함께 모여 발표하기
	· 대집단으로 모여 생각한 내용 발표하기	10:45-10:50 · 놀이계획하기
	· 놀이계획하기	10:55-11:50 · 오전 실내 자유놀이
10:30-10:40	· 오전 실내 자유놀이	미술: 통일 국기 만들기
10:40-12:00	미술: 통일 국기 그리기	- 북한 인공기와 태극기에 나온 문양의 일부분을
	소풍: 북한 음식점 놀이	이용해 디자인하기
	발가: 남과 북을 이어주는 기차길 만들기	소풍: 북한 음식점 놀이(금강산)
	언어 읽기: 동화책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에요, 금강산	· 소풍 영역 책상을 계산 책상으로 사용하고 단위를
	꽃노래, 나무꾼과 선녀, 금강산 바위 이름, 금강산 지도	책으로 손님 책상 만들기
	책, 동시 통일이 된다면 / 교구: 통일	· 요리사, 음식 나르는 사람, 계산하는 사람, 역할
	줄기: 선녀 바위	장하기
	쓰기: 통일이 된다면 동시 짓기	· 음식점 열 열기
	북한에 대해서 조사하기	· 음식점에 온 손님 주문해 식사하기
	말하기: 태극기를 만들었어요(이야기 꾸미기 그림자료)	· 주문받은 음식 밑가루 반죽과 부직포로 만들기
	수 · 조작: 수세기 대한민국 방문하기	· 손님이 2명 앉을 자리 밖에 없어서 태달 위주로 열
	수랑 다하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업하기
	모양변별) 우리나라 막대 퍼즐	· 손님은 식사후 카드나 현금으로 계산하고 나가기
	과학: 탄성 운동구	양수증 받기
	컴퓨터: 북한, 통일 알아보기	발가: 남과 북을 이어주는 길 만들기
	· 사이트 <통일꿈나무> 활동지	- 카페트 전체 크기로 단위블록으로 우리나라 지
	http://www.uniedu.go.kr/kid	도 만들기
	· 사이트 <아래동무> 활동지	- 카프카 블록으로 남과 북을 이어주는 기차길 만
	http://www.okedongmu.or.kr	들기, 단위블록으로 기차 터널 만들기
	· 화장실 다녀오기 및 정리 정돈	- 단위블록으로 도로 만들기
		- 카프카 블록으로 고려호텔 만들기
		- 금강산 만들기
		· 사과, 삼각형 단위블록으로 금강산 만들기
		- 사람, 자동차 모형으로 남과 북을 여행하는 국 놀
		이하기

시 간	계 획	실 행
11:55-12:10	· 정리정돈	· 인터넷으로 북한에 대해 조사하기
12:10-12:20	· 화장실 다녀오기 및 손 씻기	(상징, 말, 음식, 놀이, 북한 어린이)
12:30-13:10	· 점심/이따기 후 휴식	· 인터넷으로 북한에 대해 조사해 슬러하거나 종이
		에 적기
13:10-14:20	· 오후 실내자유놀이	수 조작: 과동
	언어) 북한 친구들에게 그림엽서 쓰기	과학: 탄성 운동구
14:20-14:35	· 정리정돈	인터넷: 통일 꿈나무
14:35-15:20	· 오후 실외자유놀이	· 통일 만화, '북한 어린이', '평양으로의 여행
	낙하산 놀이	에서 선택해 활동하기
15:20-15:25	· 정리정돈	남북 어린이 여행동무 사이트 가보기
15:25-15:35	· 화장실 다녀오기 및 손 씻기	· 활동하면서 알아본 것, 생각한 것 활동지에 적어
		보기
15:35-16:00	· 놀이계획표 평가 및 휴식	통일, 북한에 대하여 알아보기
16:00-16:10	· 손 씻기	아후 꾸러기: 집색아 북한, 통일
16:10-16:20	· 간식	11:50-12:00 · 정리정돈
16:20-16:35	· 귀가준비	12:00-12:10 · 화장실 다녀오기 및 손 씻기
16:35-16:50	· 하루일과평가 및 귀가지도	12:10-13:00 · 점심(음주, 버섯된장국, 햄구이,
		고사리볶음, 김치)
		13:00-14:20 · 오후 실내 자유놀이
		· 북한 친구에게 그림 엽서 쓰기: 내 얼굴 그리고
		편지 쓰기
		· 북한 말을 사용해 편지 써 보기
		(인터넷 북한 말 사이트 가서 알아보기, 다른 유아
		들이 조사한 북한 말 보기)
		나머지 영역 오전과 비슷하게 활동
		14:35-15:20 · 실외자유놀이
		대근육: 낙하산 놀이
		· 여러 명의 유아 낙하산 잡고 팔력이다 낙하산
		안으로 들어가 숨기
		· 낙하산 위에 공 올려 놓은 후 공중에 띄운 후 받기
		15:20-15:25 · 정리정돈
		15:25-15:35 · 화장실 다녀오기 및 손 씻기
		15:35-16:00 · 휴식
		통일 국기 전시한 것 보고 마음에 드는 국기 2개를
		선택해 스티커로 표시하기
		과동
		16:10-16:20 · 간식(유스, 유과)
		과동
비고	·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교사는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으며 유아들 역시 북한과 통일에	
및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었다. 특히 유아를 대상으로 한 북한, 통일 관련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터	
평가	넷 사이트의 도움이 컸다. 그러나 인터넷 사이트 역시 유아보다는 초등생 중심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	
	는 사이트가 많지는 않았으나 그림과 애니메이션이 풍부한 메뉴를 가진 사이트가 있어서 수업에서 유아	
	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었다.	

VI. 참고문헌

임미란, 서정은(2001), 인터넷 길라잡이, 한국보육교사회 서울지부

덕성여자대학교 부속유치원(2000), 상호작용이론에 기초한 유아교육과정의 운영 및 활동의 실제, 서울: 학지사

이소희외(2000), 유아교육기관에서의 Web 프로젝트 접근법의 이론과 실제, 서울: 케이앤비

이소희외(2000),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컴퓨터활용, 서울: 케이앤비

곽항림(1999), 에듀테인먼트 양상의 좋은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사이트 삼성복지재단 제 8회 학술대회 어린이와

환경 · 안전

제79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아래의 활동은 지난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이화어린이집에서 진행한 행사입니다.
내년 어린이날 행사를 기획하실 때 참고해보세요.



목적

1.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어린이의 권리를 공유한다.
2. 어린이날의 유래를 알고, 자축한다.
3. 함께 걷는 경험을 통하여 타인을 배려한다.

내용

4/29 - 5/3일까지 1주일간을 어린이주간으로 선정하고 어린이날의 의미 공유와 공개적인 어린이 권리 선언 등의 활동을 모아내는 걷기 대회를 실시한다.

1) 일정

4/29	4/30	5/1	5/2	5/3
이야기나누기 ■ 어린이날의 유래, 의미	공동작업 ■ 깃발, 플랜카드, 띠 만들기	노동절 휴원	교사 동극 “혹부리영감님”	걷기 대회 ■ “우리는 무엇이 든 할 수 있어요.”
각반 작업 ■ “우리들에게 이 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소중한 사 람입니다”			

2) 역할 분담

업무내용	담당자
어린이날 선물(티 셔츠)	원장님
걷기대회 코스 및 관련기관 연락	기획팀
이야기나누기	보육교사 2인
공동 작업	보육교사 2인
인형극	보육교사 2인
박 만들기	보육교사 1인
환경	하늘반
포스터	바다반
자원봉사자(기존, 어머니)	보육교사 1인
현수막	보육교사 1인
각반 작업	각반 담임

걷기대회 “함께 걸어요!!!”

일시 및 대상: 2002년 5월 3일 금요일.

이화 어린이집 전체유아 및 교사, 참여가능한 학부모

코스: 어린이집 뒷마당 → 임대아파트 → 시영아파트 → 외환은행앞 → 어린이집 뒷마당

프로그램

시간	내용
09:30 ~	어린이집 뒷마당으로 집결
~ 09:40	원장님 말씀
~ 09:45	어린이 선언문 공표
~ 09:55	몸풀기(노래 및 율동-윷놀이)
~ 10:00	걷기대회 출발
~ 10:30	임대아파트 돌기
~ 11:00	시영아파트 관리사무소 도착(물마시기)
~ 11:10	시영아파트 외환은행앞 도착
~ 11:25	구호 외치기(교사와 대표아동 신청)
어린이 선언문 공표	어린이집 출발
~ 11:55	어린이집 뒷마당 도착
~ 12:10	박터뜨리기
원장님 말씀	마무리 체조



세부 프로그램

무엇을 할까	누가 할까	준비물	시간	세부 프로그램	담당자
1. opening	전체유아/이외 참가자	-이동표 갖방 -확성기 -플래카드/피켓 -자원봉사자/부모 이동표	09:30-09:40	*레크레이션 *각반 유아이동표 갖방 *확성기 *플래카드 *자원봉사자 이동표 준비 *물준비	
2. 사회 및 인사말	방원이/원장님	-확성기	-09:45	*각반 인원확인 및 원장님 말씀 소개 *원장님 말씀 (격려, 대회 시작 발표, 구호 외치기) *확성기	
3. 어린이 선언문 발표	하늘반 대표 아동	-어린이선언문 -확성기	-09:50	*어린이선언문 *확성기 *아동 준비	
4. 몸풀기	이수미/전체유아	-라디오 -테이프(필드컵)	-09:55	*라디오 테이프	
5. 어린이집 출발	인솔자/방원이		-10:00	*햇살반 유모차 *자원봉사자 배치 *앞선 길장리 *해당반 인솔 *구호외치기	
5-1(1point) 임대아파트 단자내 도착	전체참가자	*확성기	-10:30	*1point도착 확인 및 구호선창 *확성기	
5-2 (2point출발) 시영apt로 출발	전체 참가자	*확성기	-10:30	*출발 신호 *구호선창 *햇살반 교실로 귀환 *물준비팀 출발	
5-3(2point 도착)시영apt관 라나루소 앞	전체 참가자/물준비팀	*확성기 *물준비	-11:00	*도착팀부터 돌아서기 *물 마신팀 필드제로 출발	
5-4집결지 도착 (외환은행 앞)	전체 참가자	*확성기	-11:10	*각반 인원정점 *대열정비	
5-5 대회 알리기/어린이선언문	전체유아/하늘반 대표아동	*확성기	-11:25	*확성기 *사회,대회알리기 *원장님 말씀 *어린이선언문 *아동준비 *구호선창	
5-6 어린이집으로 출발	영아반부터 출발		-11:25	*인솔자 *물준비팀은 어린이집 뒷마당으로 출발 *사전 길장리	
5-7 어린이집 도착	전체유아	*확성기	-11:55	*대열정비 *각반 인원정점 및 정비	
6대회 마무리 인사/박터뜨리기	전체 참가자	*박	-12:10	*사회(최종 도착 알림) *원장님 말씀(격려 및 칭찬) *박터뜨리기	
7교실로 귀환	전체유아			*대열정비(영아반부터)	
8뒷정리				*뒷마당 정비	

주의사항

1. 당일 자원봉사자를 미리 섭외하여 확보한다.
2. 햇살반(영아반)은 장거리를 걷기 어려우므로 임대아파트만 돌고 어린이집으로 돌아온다.
3. 코스를 선택할 시 관련기관에 공문 등으로 미리 연락을 위해 협조를 요청한다.
4. 인도를 이용할 시에는 경찰서의 사전연락이 필요하지 않으나 그럼에도 사전연락을 취하도록 한다.
5. 걷기 대회 코스를 사전 답사하여 안전사고 등을 예방한다.



평가

교사평가

1.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추상적 주제를 감안할 때 준비기간이 짧아 행사에 미흡한 점도 있었으나 기존의 어린이날의 혼한 행사들과 차별화를 두어 처음 시도된 행사였던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 만 하다. 대안으로 다음 행사 진행 시에는 장기간을 두고 프로젝트화 하여 진행하여 아이들의 이해도도 높이고 행사의 단점도 개선할 예정이다.
2.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연간 교육 주제와 연계하여 진행하여도 좋을 듯하다.
3. 행사취지에 반해 홍보전략이 미흡하였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였으나 간접적 설득으로 그친 면이 없지 않았다. 직접적 접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좀더 확실한 행사 취지를 알렸어도 좋을 듯 하였다. (어린이 권리 선언문 배부 등등)
4. 어린이는 1년 365일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루 동안의 반박 이벤트로 변해버린 요즘 실태를 반영해 볼 때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뜻깊은 행사였다.

아동평가

1. 아이들과 행사에 대해 직접 평가를 해보지는 않았으나 아이들 생활에서의 간접적 평가를 해볼 때 아이들이 좋은 장난감이나 좋은 곳에 놀러가거나 하는 바램보다는 '엄마, 아빠와 목욕탕 가기' 등의 소박한 행복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기간이 짧아 아이들의 행사에 대한 이해가 적기는 하였으나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구호를 외치며 스스로를 존중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3. 행사의 준비를 아이들 스스로 참여하여 준비함으로써 행사 주체가 교사가 아니라 아이들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학부모평가

1. 단체 활동에서의 자신의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 좋았다.
2.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행사에 함께 참여함으로 부모 교육적 효과와 함께 어린이들의 인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3. 어린이들이 어른들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물질적인 것들이 아님을 아는 계기가 되었다.

보육예산 두 배 올리기와 보육교사 처우개선 서명전에 다녀와서...

보육교사

아래의 글은 3월 23일과 4월 14일에 서울에서 진행된 '보육예산 두 배 올리기와 보육교사 처우개선 서명전'에 참여하신 보육교사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글입니다. 본인의 요청으로 무기명인점 양해바랍니다.

가벼운 옷차림으로 꽃구경 나온 가족들, 연인들을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던 것도 잠시.. 공원 맞은 편에서 노란 풍선을 든 선생님들을 보니 참으로 반갑기 그지없었습니다.

더욱이 학교 선택에서 한국보육교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돼 무척 힘이 됐었고요, 공원에 놀러왔던 후배도 만나 오랜만에 인사도 나누었던 기분 좋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날 참석하신 선생님들 모두 어느 정도는 느끼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서명 받다는 게 수월한 일은 아니더라고요.

다들 가벼운 마음으로 나왔으니 서명 또한 선뜻 해 줄 것이란 기대는, 준비한 유인물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해 내밀었던 손 거두기를 거듭하면서 슬슬 무너지고...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손사래를 치는 아기업아들을 볼 때면 안타까운 생각도 많았어요.

다 같이 잘 키워보자고 나선 자란데 예구.. 내가 사람을 잡아끄는 편가가 부족한 게야.. 약간의 좌절감도 느껴지면서 말이죠.

하지만 미혼인 젊은 분들이 맞벌이와 관련해 많이 수궁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셨을 때, 그래.. 우리가 결코 사람들과 멀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힘이 났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 곱디고운 우리 선생님들 얼굴에 정점이 먼지 자욱 남겼던 하루였습디만, 함께 하는 소중한 경험하기에 힘든 줄 몰랐어요.

그리고 특히 땀풀이...!!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겐 비밀에 부쳐야 할만큼 온몸을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요.. 호호..

다음엔 더 행복한 얼굴로 만나요-

편집 주) 4월 25일 지난 3.4월간 진행된 보육예산 확보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결과 보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지난 활동을 돌아보고 참여한 선생님들과 맛있는 정통동 축발을 먹으며 땀풀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동안 서명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관계부처(복지부)에 우리의 의견과 서명을 전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의 발전을 위한 한국보육교사회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 석자를 아름답게 남기는 방법

이미정 · 부산, 편집부장

4월13일 <토요일> 서명전을 마치면서 있었던 많은 일들과 그 속에서 받았던 느낌들로
랜지 방장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내가 선택한 보육교사라는 직업이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하루였으며 아울러 우리 보육교사들이 정말 더욱더 열심히 우리 일들을 알려 내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들을 갖게 만드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 글을 올리는 가장 큰 이유들 중... 이날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내 이름 석자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 일을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보육교사들만은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더군요.

사람은 이름석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고 있습니다.

내 이름 석자를 한 개인의 부귀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이웃의 아픔을 나누는 일에 남길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이름을 지어 주신 부모님께 보답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거리에서 하는 많은 서명전이나 이웃의 아픔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시는지요?...

내 이름석자를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무관심하지는 않았는지요... 만일 앞으로 내 이름 석자를 아름다운 일에 사용할 기회가 온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기록 해 보는 것 또한 나의 행복을 하나 더 가지는 일이 아닐런지.... 이런 저런 생각들로 오늘은 마음이 썩하네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선생님들이 선택한 보육의 앞날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저처럼 벗어 던지는 일없이 끝까지 아이들을 지켜 주시는 용기 있는 보육교사들이 되어 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마음 가득합니다. 이날 서명전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더 수고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특별히 서명전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지부장님... 그리고 사화를 맡아서 아픈 몸인데도 1분도 쉬지 않고 말씀을 이어주신 김향진 선생님.. 그리고 서울에서 오신 이경녀 사무국장님... 마지막으로 차량으로 우리들의 행사 준비물과 안전을 책임져 주신 김숙련 선생님과 남편 아저씨 정말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 있을 때..... (알겠조)

모두들 정말 수고하신 것 같아서 이 늦은 밤 백수가 할 일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아서 글을 올려 봅니다.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보육교사들 앞으로도 계속 수고 해주세요.

보육교사 파이팅 입미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보육교사 여러분을 보며 마음으로부터 성원과 지지를 보냅니다

주소라 · 광주전남지부 후원회원

4월 보육예산 2배 올리기와
보육교사 처우 개선 서명운동에 참가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번 서명 운동에 참여하신 많은 선생님들을 보며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또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설명에 열심히 귀 기울여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신 분들의 따뜻한 격려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시내 한 고등학교 도서관에서 사서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마음과 사랑을 주고받는다는 점에서는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셈이지요.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사랑을 바탕으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려는 마음을 다지곤 합니다.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한 면이 많아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제도 개선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보육교사 여러분을 보며 마음으로부터 성원과 지지를 보냅니다. 역사는 저절로 혼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깨어있는 창조적 소수의 방향 제시와 절대 다수의 대중교사들이 함께 힘을 실어줄 때 우리의 교육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톨의 짧은 작고 미미하지만 그것이 모여 한 그릇의 밥이 됩니다. 우리 비록 약하고 힘없는 이름 없는 교사이지만 우리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과 미래를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보육교사들의 직업병 이겨내는 방법 있다!”

-서울지부 회원의 날에-

김수연 · 씹씹어린이집

토요일 오후 영등포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서울지부 회원이 모였다.

99년 이후 지회모임이 없어지면서 공식적으로 서울지부 단위로 모이는 것은 참으로 오래간만의 일이다. 지난 2년간은 소모임과 부서별 모임의 형태로 회원 만남이 있었고 지부 전체 회원 만남은 총회를 포함해서 1년에 두 세차례 정도였었다. 2년의 공백기간을(?) 두고 오랜만에 만나는 월모임이었지만 모두들 건강한 모습이었다.

서울지부장 김진숙 선생님은 “이제 매달 월례모임으로 회원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첫모임을 축하하기 위해서인지 손님맞이 준비를 팡팡하게 준비한 이상옥 선생님은 간단한 다과 외에도 사비를 들여 한방통닭 두 마리를 대접하여 다음 모임을 준비할 선생님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었다.

이후 이보경 선생님이 준비한 색종이접기 시간은 자칫 식상할 수 있는 색종이 접기를 정성껏 준비하여 다른 회원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30대 중반이상의 최하 5년 최상 10년의 보육경험을 가진 노련하고 원숙한 회원들이 대부분인 서울지부 회원들은 내공(?)이 풍부하여 양성평등교육이야기가 나오자, 저마다 주옥같은 이야기를 꺼내놓기도 하였다. 더군다나 올 초부터 서울지부 행사에 한번도 빠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석한 모범회원이 가장 큰언니인 박인혜 선생님과 김숙자 선생님이란 사실은 나이 어린(?) 30대 초반 회원들에게 큰 자극을 주었다. 이에 아무개선생님은 “우리는 이 두 언니들의 공통점을 본받아야 한다.”며 열을 올렸다.

새터어린이집의 김정은 선생님의 무계감 있는 사회로 시작된 이날 한방상당은 보육교사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직업병에 대해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이에 권태식 한의사 선생님이 답해주시는 형식이었다.

이미 서울지부 소식지인 “아! 찾았다”에도 소개되긴 했지만 전국의 우리 회원들과 보육교사들에게 도움이 될까하여 다시 한 번 소개하고자 한다.

구로 한의원의 권태식 선생님이 말하는 건강방법은 이렇다.

- 1 _ 물을 많이 마셔라.
(몸에서 부족한 수분을 대변에서 흡수하는 것을 방지한다)
- 2 _ 밥 먹을 때 물이나 국물은 되도록 적게 먹고, 식전식후 1시간 정도는 물을 안 마시는 것이 좋다.
- 3 _ 밥은 꼭꼭 많이 씹어 먹어라.(물에 말아먹으면 위장을 다 버리게 된다.)
- 4 _ 몸이 아픈 사람은 아침 한끼 정도의 채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5 _ 자기 전에 서로-같이 사는 사람과- 마사지를 해서 몸의 근육을 풀어주고 잠을 자야 뭉친 근육이 빨리 풀어진다.
- 6 _ 바닥이 따뜻한 방에서 많이 지저라.(따뜻하게 자야 근육이완이 잘 된다)
- 7 _ 아이를 안거나 업을 때는 몸에 착 붙인 상태에서(골반에) 무릎으로 일어나라.

모임이 끝나고 아무개 교사는 "한의사 선생님이 오신다 길래 손목이라도 한번 잡아주실 줄 알았다"며 이야기하자 또, 한 교사는 "나도 목욕을 하고 와야하나 하고 고민했어!" 하며 아쉬움을 달래기도 하였다.

비가 오는 추적추적한 거리를 나선 회원들은 이내 뒤통 좀 먹고 가자며 손칼국수집을 들렀고, 내쳐 맥주집까지 갔다.

피곤한 일주일을 보내고 쉴 수 있는 토요일 오후에 (거기다 비까지 오는 날) 이렇게 늦게까지 회원들이 집에도 가지 않고 모여있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

아무튼 설새없이 애들 이야기에 웃고, 마들고, 고민하는 서울지부회원들 그들의 모습이 아름다웠다.

인물탐방기

고영미 · 경기, 근로복지공단 안산어린이집

부산의 참새는 '참된 새' 일까요? 조잘조잘 참새일까요?
부산지부의 김정애 선생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밤 12시가 다 되어서야 겨우 팬을 들었어요. '회원 탐방' 질문지 답안 마련을 위해서지요. 이번 <우리네 아이들> 인물 탐방 코너에 '당첨'되었단 말을 듣고, 좀 걱정을 했었어요. 그 동안 읽었던 탐방 글에서 무슨 음식을 해놓고 기다렸다는 등, 맛나게 먹으며 얘기를 나눴다는 등 해서 '와! 이거 뭘 음식을 장만해야 하나?'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한테 제 걱정은 그야말로 실없는 아니면 부질없는 것이 되어버렸지 뭐예요. 글썄, 안산의 고영미 선생님이 너무도 먼 이곳 부산까지는 직접 탐방을 올 수가 없다지 뭐니까? 흑흑. 없는 송씨나마 음식을 좀 차려놓고 부산지부의 다른 회원들도 초청해서 편찬은 술자리 하나 마련해보자 싶었는데, 탐방 질문지만 메일로 날아왔거든요.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막 쏟아놓으면 싹싹 들어 담아 정리해줄 방문자 없이 질문지만 받고 보니 속재를 턱 받아둔 아이같이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그렇다고 못 오시는 분을 원망하는 건 절대 아니예요. 다만, 혼자 묻고 답하고 하는 형식의 글을 쓰자니 좀 불편하겠고, 저 편한 대로 쓰면 "영? 탐방기사가 아니네" 하는 생각이 들까봐 앞 뒤 사정을 잠깐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받은 질문지를 참고로 해서 저를 탐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긴장!

어떠세요? <우리네 아이들> 인물탐방에 당첨된 기분이지?

음~ 처음에는 좀 외이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나지? 싶었죠. 부산엔 탐방을 당할만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을 추천해줄 생각을 했죠. 하지만 무조건 당첨이라는 말에 한번 당해보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은근히 기분 편찮은 거 있죠. 제가 탐방을 해보긴 많이 했어도 당해보긴 처음이거든요.

보육교사회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나요? 회원들에게 자기 소개도 좀 해주시구요.

아~ 뭐라고 소개하지? 이름은 김정애, 참새 선생으로 통하지요. 나이는 원송이띠, 고영미 쌤도 원송이띠지요? 보육교사회에 원송이띠가 많더라고요. 부산은 특히 더 그런 거 같고, 보육교사는 3년 정도 했어요. 다만 지금은 휴직을 하고 보육교사회의 회원을 하고 있죠. 인연은 어떻게 맺었더라? 지략연 초창기 시절에는 알고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관계는 없었어요. 영유아보육법 제정 당시 상황 정도만 대충 아는 정도였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관계를 맺었던 때는 1994년도 제가 보육교사교육원을 다닐 때였어요.



제가 학교 때 워낙 공부를 쫓아갔고 살았거든요. 제가 교수였으면 절대로 졸업시키지 않을 정도로 학과 공부를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였는지 교육원 공부를 할 땐 '공부하는 것 같이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같이 어울려 다니던 사람이 여러 명 있었는데 다들 저랑 비슷한 생각이었나봐요. 나이도 다 다르고, 이전의 경험들은 달랐지만 성향들은 비슷했죠. 그래서 같이 책도 많이 읽고 토론도 열심히 했지요. <손상된 아동기> <아동기의 실종> <함께 크는 우리 아이> <비교 문화적으로 본 유아교육기관> 같은 책들이 우선 떠오르네요. 그야말로 현장감각은 하나도 없지만, '바람직한 보육'의 상에 대한 고민은 치열하게 했던 셈이죠. 그러다가 누가 '부산지역탁아위원회'에 대해 얘기 좀 들어보자 해서 우리 패거리(?)들과 그 때 부탁위 회장이던 이원경 선생님과 만나 부탁위 역사, 지향하는 것, 현장의 이야기 같은 것들을 들었죠. 그리고 방학 때 '새싹들의 집'이라는 부탁위 어린이집에서 잠깐 자원봉사를 했고, 95년에 보육교사가 되면서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죠. 너무 길었나요?

● **괜찮습니다. 편집하면 되니까요. 하하하. 가족들 소개 좀 해주세요.**

보시다시피 두 아들이 있구요. 민호는 여섯 살, 창호는 다섯 살이에요. 아기 자람터에 다녀요. 아이들은 부산에서 아기자람터가 제일 좋은 어린이집이라고 믿고 있어요. 남편은 애들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결혼한 지 이제 8년째 접어들었네요. 자상하고, 애들하고도 적극적으로 잘 노는데 늘 바빠서 함께 있을 시간이 좀 부족하지요.

● **만만찮겠어요. 연년생 아들이라니. 부산에는 프로젝트 사업을 활발하게 벌이는 것 같네요.**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던 일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제가 맡고 있는 건 "시설아동의 정서심리적 안정과 어휘력, 사고력 신장 및 내면의 성장을 돕기 위한 독서 글쓰기 교육지원사업"이에요. 무지하게 긴 이름이죠. 사업의 내용을 담아내려고 하다보니 그렇게 됐어요. 이 사업은 2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 회원들이 직접 참여할 자원봉사자를 따로 모집해서 진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 어려움이 있죠. 우선 아이들 만나는 게 너무 쉽지 않았고요. 함께 고민을 나눌 우리 회원이 하나도 없다는 게 힘들었죠. 2년째 되니까 이제 그게 일로 느껴지진 않구요. 어쨌든 아이들은 만날 수 있는 건 너무 좋아요. 기억에 남는 일이라? 특별한 사건들보다는 제가 맡고 있는 아이들이 떠오르네요. 굉장히 안정됐구요. 마음을 활짝 열어줘서 비밀도 털어놓는 사이가 됐어요.

● **영화의 도시 부산에 사는데 요즘 본 영화가 있나요? 좋았던 영화를 소개 좀 해주세요.**

음악과 감독 소개도 덧붙여주세요.

영화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어요. 자주 보지도 않고요. 그래도 작년에 본 '소름'은 정말 소름끼치도록 오싹했어요. 질긴 운명의 끈을 발견할 수 있었구요. '봄날은 간다' '프린스 앤 프린세스'를 재미있게 봤어요. 올해는 최근에 '집으로...'를 봤는데 맨 앞좌석에 앉아 고개를 뒤로 제끼고 보느라 너무 고통스러워서 감동은 많이 놓쳐버렸고... 음악과 감독에 대해서는 더 더 아는 게 없답니다. 죄송. 아! 제가 만나는 아이들이 엑스트라로 나온 영화가 있어요. 뭐냐구요? 이렇게 공개해도 될라나 모르겠네. '친구' 아시죠? 제가 만나는 아이들 중에서 절충한 영화배우가 나오게 될지도 몰라요. 혹시 그랜, 제가 대신 사인 받아드리죠.

● **그럼 미리 하나 부탁할게요. 그런데 당언이 아역이었겠죠? 누구였어요?**

묵묵부답

● **홀쏬쏬 삐짐!**

저는 향후 10년 때문에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거든요. 꼭 20대 초반 청년시절처럼 무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문제로 열병을 앓을 지경인데 선생님은 어떠세요? 계획하고 있는 일은 있나요?

글쎄요. 뭘 해야 좋을까요. 저도 고민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열병을 앓는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현장 교사가 아니라서 좀 자유로운 건지는 모르겠네요. 하고 싶은 일을 하나씩 하다보면 어느새 10년이 다 차지 않을까요? 그 10년 후에는 또 그렇게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나이쯤에 하고 싶은 건요. 첫 번째는 '아이 돌봐드립니다.'하고 전봇대에 써 붙여서 돌 안된 아기를 보는 일이에요. 그때면 힘은 여전히(?) 팔팔할 것 같고... 아, 잠깐만요. (급하게 화장실로 가서 한참만에 나온다) 죄송합니다. 지난주부터 장염을 앓고 있는데 얼른 안 낫네요. 그렇지만 힘은 팔팔합니다. 진짜예요. 나이가 더 들면 하기가 힘들겠고, 솔직히 말하면 두 녀석을 함께 키워서 여유 있게 애 키우는 재미를 못 봤어요. 셋째를 낳아 키울까도 싶었지만 그건 포기하고, 애 키워주는 아줌마로 선회한 거예요. 정말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지역아동들을 위한 '어린이 책·글방' 해보고 싶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는 육경이 할머니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좀 하고 있어요. 제가 길에 다니면서 누가 뛰 버리고 하면 바로 면상에다 대고 "거기 주우시죠?"하고 얘길 하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인상 봐가면서 애 기하는데 할머니가 되면 뭐가 겁나겠어요. 보이는 사람마다 그렇게 해대면 육경이 할머니밖에 더 되겠어요? 우리 남편에게 "내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하고 물어보니 크게 고개를 끄덕거리며 한다는 말이 "그렇게 되겠지."하는 거예요. 인생 말년을 누군가 귀담아 들어주지도 않는 말을 계속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10년 후를 생각할 때 조금 걱정스러운 건, 제가 하고 싶은 게 자질구레하면서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이루기는 쉽지 않을 거 같네요. 가지를 좀 쳐나가려고 마음은 먹고 있어요.

● **아니, 그런데 입만 뗐다하면 말이 막 쏟아지네요. 왜 묻지도 않은 노년의 계획까지 얘기하고 그래요? 이거 진짜 편집 당해요. '침새'란 별칭이 아마도 그래서 붙은 건가보죠?**

침엔 '창원 새' '창한 새' '늘 아이들 옆에 있는 텃새' 같은 의미로 썼는데 점점 조잘조잘 참새가 되어가고 있네요.

● **아무튼 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로는 여름수련회에서 봅시다.**

필요. 여름수련회에서 복수할 예정이니까 기대하세요.

한국보육교사회 회원 여러분, 임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름수련회에서 뵙자요. 건강하세요.

● **이것으로 부산지부 김정애 회원의 탐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행복한 우리 어린이집의 아이들

편집부

01 불이 먹었어요.

불의 요정 깨비를 보고 난 뒤 소방대원 아저씨가 질문을 했다.
소방대원: 불이 나는 몇 가지를 봤어요, 어떻게 불이 났는지 얘기해 볼 친구?
재중: 저요!
소방대원: 그래, 어떻게 불이 났지요?
재중: 음.... 어.... 불이---..... 먹었어요.
- 가스불에 불이 들어넘쳐 불이 나는 장면인 듯 함.

02 우리 아이는 영재?

요새 숫자에 대한 호기심이 부쩍 늘은 영준,
모처럼 8자를 써 놓고 엄마한테 질문을 하였다.
영준: 엄마, 이게 무슨 자야?
엄마: (아이의 천재성에 놀라며) 오웅, 그건 "팔"자란다.
영준: 아, 그렇구나!
영준이는 바로 눈사람에 왼팔(?)과 오른팔(?)을 정성껏 그려 넣었다.

03 너어~~

저녁시간을 이용해 정모에게 뒤편 가르쳐야겠다고 마음먹은 정모엄마, 그 날은 아빠 이름을 복습시키고 있었다.
엄마: 정모야, 아빠 이름은 강세구, 강. 세. 구. 알았지?
정모: 응, 강! 세! 구!
엄마: 아이구, 내새끼 잘 한다.
이런 식으로 약 30회 정도 반복했을 때, 정모아빠가 퇴근하여 집에 들어왔다.
발을 씻고 있는 아빠에게 정모가 다가가더니 세모눈을 해가지고 갑자기 검지를 치켜들며,
정모: (이제 더 숨겨야 소용없다는 표정으로) 너어- 강세구지?

04 그러면 안돼지~

간식시간에 책상이 가로막혀 건너편으로 책상을 훌쩍 뛰어넘어간 선생님께,
재중: 그러면 안되잖아요~ 돌아서 가야지~!
역시 아이들은 어른의 스승입니다.

잔인한 4월의 신나는 추억

이정미 · 광주전남, 도담도담어린이집

일요일 아침 9시.
보통 때 같으면 집집마다 늦잠에 텔레비전 시청에 느긋한 휴일 아침일텐데 오늘은 몹시 북적이고 있었다.
김밥도 싸야하고 잠에서 깨지 못하는 아이들과 아빠를 깨우느라 엄마들은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고 잠에서 깬 아이들은 흥분에 싸여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부산을 떨었다.
한편, 도담도담 어린이집에서는 교사들이 날이 밝기 무섭게 나와 음식, 놀이기구, 천막에 텐트까지 생기기며, 한 무리는 선발대로, 한 무리는 참가 가족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역시 바쁜 아침을 맞고 있었다.
눈 깜짝 할 사이에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고 하나, 둘 가족들이 어린이집에 들어서기 시작하더니, 대형 버스가 도착하고, 몸과 짐을 싣고 신나는 가족 소풍의 나팔을 울렸다. 땡- 땡-
버스가 시내를 벗어 날 무렵, 소풍 장소며, 하루 일정 소개, 우리 아이들이 즐기는 손노래, 손놀이 등을 원장선생님은 목청을 높여 이야기하고, 이어서 가족 소풍에 참가한 가족들의 소개도 이어지는 사이 목적지, 백아산 자연 휴양림에 도착하게 되었다.
먼저 도착해서 천막을 치고 기다리던 선생님들의 환대를 받으며, 우린 바로 짐 풀이와 몸 풀이를 하였다.
아이들은 너른 풀밭에 정신을 빼앗긴 채 뛰어다니느라 다른 아무 것도 관심이 없고, 어른들만 굳은 몸을 열심히 흔들어 대노라니 지나가는 여행자들의 즐거움이 된 듯 싶었다.
이어서 "가족 대형 동판 대회 및 문제 풀이"가 진행되었다.
유아반 언니, 오빠들은 엄마도 아빠도 동생도 뒤로 한 채 그 동안 쌓아온 동반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걸음마가 서툰 뽀뽀이반, 튼튼이반 이가들은 천막에 남겨둔 채, 우리 도담이반 친구들은 조금 천천히, 조금 여유 있게, 무리 지어 산길을 나아가기 시작했다.
새로 산 신발이 아직도 발에 맞지 않아 혈형이는 재호, 키도 작고 발마저 작은 유빈이, 갓난쟁이 동생에게 엄마를 맞기고 아빠 손을 잡고 걷는 현우, 배가 신난 한 정미 선생님... ..
산길을 오르며 길가에 핀 들꽃의 이름과 생김새도 들여다보고, 돌맹이도 주워보고, 출발할 때 받은 계란도 까먹으면서 걷는 동안 어느새 팔팔하던 바람은 시원하게 느껴지고 꽃동에, 이마에 땀이 송글거렸다.

다리도 아파 오고, 배도 고파지는데 왜 이리도 정신은 안 나타나는지. 이 모퉁이만 돌면 나타나려니... 하던 게 여러 번이 될 무렵, 드디어 나타난 종착점.

내리막길도 만만치 않았지만 엄마의 아빠의 도움으로 또롱이의 동반은 무사히 성공적으로 끝나쳐졌다.

비록 출발도 도착도 맨 끝이었지만.

동반 뒤에 먹는 밥맛은 정말 정말 꿀맛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조금 밖에 먹지 않았는데 배도 부르고, 다시 뛰어 놀고 싶은 맘이 생기는 것이었다.

선생님이 나눠주신 바닷방울을 붙여 뛰어 놀다가 찍자마자 나오는 이상한 사진도 찍고, 잔디밭 아래쪽에 있는 놀이터에서 지칠 줄 모르고 노는 사이 "도담도담 친구들, 가족들 모두 모이세요!"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른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보니 곳곳에 재미있어 보이는 것을 선생님들이 준비하고 있었다.

잘은 모르지만 누구는 엄마랑, 누구는 아빠랑 짝이 되어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시합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게 릴레이 게임이란 것이었는데, 아무튼 빨리 달리고, 요구르트도 마시고, 사탕도 먹고 하는 빨리빨리 해야하는 재미있는 놀이였다.

키가 작은 또롱이반 친구라도 잘 하는 친구가 있었고 키가 큰 썩썩이반 아이도 달리다 넘어지기도 하고... 소리 소리 지르며 응원도 하는 사이 게임은 끝나고, 소풍의 하이라이트- 줄다리기를 한판. 예전 같은 줄다리기에 목숨 걸었을 텐데 동반에 릴레이 경기에 지쳐서인지 오늘은 조금 싱겁게 끝이 났다.

서서히 몸이 나른해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져갈 무렵, 모두모두 모여 나무 밑에서 사진을 찍는단다.

이제 차례 올라 잘 잘 생각만이 간절한데 원장선생님이 친구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선물을 나눠주었다. 동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녀 온 상이란다.

가슴이 콩당거리고 두 눈이 반짝거리고 귀가 쫑긋 섰다. 드디어 내 이름이 불리고... 난 막대 사탕을 몽치로 거머쥐고 의기 양양 걸어 들어왔다.

버스에 몸을 싣고 금세 잠이 들었지만 난 꿈 속에서 오늘을 즐겨워한다.

소풍은 정말로 즐겁고 신나는 일이다.

매일 매일 소풍 가면 안 되는 걸까?

토론방개설!

우리 회 홈페이지에 보육주제 토론방을 개설하였습니다. 매달 새로운 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활발한 토론을 통해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고민되는 문제를 토론을 통해 문제해결에 도움을 받고,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5월의 주제는 양성평등 교육입니다.

육아일기

어린이날 즈음하여

전경숙 · 경기, 회원

얼마 전에 또래친구네 집에 소연이가 또래 친구하고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보았다.

물어서 바비 인형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다.

바비 인형을 좋아하지 않는 엄마를 둔 덕분에 집에는 할머니가 얼마다 준 약간 낡은 바비 인형을 가진 소연이로서는 머릿결도 곱고, 옷도 새것인 친구의 바비 인형이 부러왔나보다.

그 친구는 소연이가 가지고 갈까봐 조바심을 내고, 소연이는 그 친구의 바비 인형이 너무나 탐이 나서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꺾고서는 집에 갈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소연아, 엄마가 다음에 사줄게.' 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소연아, 너는 집에 두 개나 있잖아. 있을 때는 사는 거야나."

내가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나 생각하면서도 더 이상의 말을 해주지 못해서 아이를 울리고 말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이에게 너무 풍족하게,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면 아이를 망칠 것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아이가 너무 풍족하면 물건의 고귀한 것도 모르고 또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없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 못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아이 엄마가 이런 말을 했다.

그렇게 가지고 싶어하면 애 기죽이지 말고 사주라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내 마음은 흔들린다.

'사달라고 하는 대로 다 사주면 안 돼. 버릇이 나빠질 테니까....'

'사주면 좀 어때?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까짓 인형 하나 때문에 아이를 울리고 기를 죽여? 얼마나 가지고 싶으면 저렇까? 이번 한번만 사주자.'

그렇게 생각하고도 한참만에 결국 사주게 되었다. 사주고 싶어하는 아빠의 압력도 있고 또 어린이날 이다가 오기도 해서..

사주면서도 또 생각한다.

아이들이 빛이 되

'아이가 이것 말고도 갖고 싶은 것이 많을 텐데 그때마다 이렇게 또 다른 나와 싸워야 하나?'
아까 사주라고 했던 엄마도 아이가 사달라고 하는 대로 다 사주지는 않는다고 했다.
아주 기특한 일을 해서 무엇인가 상을 주고 싶을 때, 정말로 갖고 싶은 것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한단다.
그래야 그 선물이 가치가 있고 아이도 귀한 것을 안다고 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아이에게 인형하나 사주면서 뭐가 그리 복잡하고 생각할 것이 많으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원칙도 없
어 어디까지 아이의 요구를 들어줄 것인가?
나는 소연이, 소정이가 사물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다. 내 물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물건도
사실은 사물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데...
모르겠다, 소연이 눈에는 갖고 싶은 것만 사주는 인색한 엄마로 비춰질지 어떨지...
어린이날은 다가오는데 집집마다 선물 위해 줄까, 아이들도 무엇을 받을까 고민들을 하겠지?
어린이날 무엇을 사주는 것보다 우리 딸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하루가 되게 하고 싶은데 무엇이 좋
을까?
물질적으로는 인색하지만 마음으로는 풍요로운 엄마가 되고 싶다.

'우리네 아이들'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우리네 아이들'을 주변의 아는 사람에게 추천하시고자 하는
회원, 자료회원 여러분은 반으실분의 주소와 이름, 연락처를
중앙 사무국에 알려주십시오.
1회에 한하여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중은 그림책 소개

똥벼락

이진 실 · 인천, 생터 공부방

글쓴이 김희경, 그림이 조예란,
사계절출판사, 8,000원



굵직한 똥자루 똥, 질척질척 물썩똥, 똥똥, 진똥, 선똥, 피똥, 알똥, 배내똥, 개똥, 소똥, 닭똥, 말똥,
돼지똥, 토끼똥, 염소똥까지 후둑후둑 처덕처덕, 푸드득 푸드득, 퍼드득 퍼드득...

이것은 김부자네 집 마당에 '똥벼락'이 내리치는 모습입니다.

가난한 돌쇠 아버지는 30년간 김부자네 집에서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지만 욕심쟁이 김부자가 새경이
라고 내놓은 것은 풀 한 포기 자라지 않은 돌밭이었어요.

그러나 돌쇠와 아버지는 낙심하지 않고 좋은 밭을 일구기 위해 거름을 만들려고 죽기살기로 똥을 모
았습니다.

왜냐하면 30년 넘게 피 땀 흘려 일한 대가로 받은 돌밭을 일구는데 똥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지
요. 먼데서 놀던 돌쇠도 똥이 마려우면 부라나케 집으로 달려오고,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개똥만 봐도
금덩어리처럼 귀하게 들고 왔지요. 돌쇠 아버지는 잔칫집에 갔다 똥이 나오려고 하면 아까운 똥 남의
집에 줄 수 없다고 집으로 달려옵니다. 달려오다 도저히 참을 수 없으면 "싸서라도 가져가자" 고 할 정
도입니다.

그러다 산도깨비의 도움으로 김부자네 똥을 거름으로 쓰게 되죠. 열심히 농사를 지은 돌쇠네는 많은
수확을 거두었어요.

그걸 알게 된 욕심쟁이 김부자는 배가 아파 삼술을 부렸답니다.



자기 집 똥으로 똥년이 든 곡식을 내 놓거나 똥을 돌려 달라고 말이에요.

결국 김부자는 산도깨비의 벌을 받아 온 세상의 똥으로 집을 뒤덮는 똥벼락을 맞습니다.

"으하하하하.....하-악, 학,학" "아이 더러워 똥!" 정말 똥냄새가 나기라도 한 것처럼 자지러질 듯, 배를 움켜쥐고 때구르르

웃어대는 아이들의 모습이 더 우스웠던 그림책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은 특히 산너머 잔칫집에서 잘 차린 상을 마다하고 똥구멍을 꼭 오므린 채 집으로 달려가는 돌쇠 아버지가 산 중턱에 앉아 참았던 똥을 '뿌지지작'누는 장면(정말 실감나게 그렸습니다)과 그러다가 난데없는 오줌벼락을 맞은 도깨비에 놀라 돌쇠 아버지가 그만 똥 누다 주저앉아버린 장면부터 폭풍전야 같은 김부자네 마당으로 일순간 파부어 대는 똥들의 구름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똥'이란 아주 원초적인 대상이어서 재미있어하는 소재입니다.

"예전에는 똥도 아까워서 어디 나갔다가도 마려우면 집 뒷간에 와서 누었던 때가 있었어"란 말을 하면서 전에 아이들과 밭에 갔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때 아이들은 똥냄새가 난다고 코를 막았지만 다들 우리가 먹을 채소랑 곡식 키워주는 좋은 냄새라고 말했거든요.

이렇게 귀하고도 더러운 '똥'은 착하고 부지런한 돌쇠네에겐 축복을 주는 똥벼락으로, 욕심에 사로잡혀 착취를 일삼는 김부자네에겐 벌을 내리는 똥벼락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똥은 쓰기에 따라 귀한 것이 될 수 있고 천한 것도 될 수 있다고 하는 옛 조상님들의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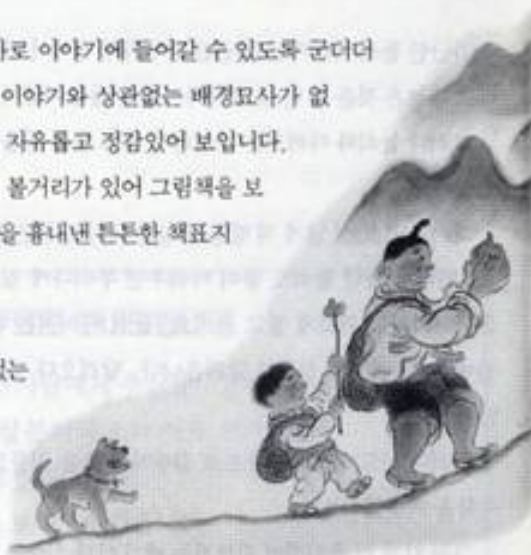
옛이야기 형식을 빌어온 창작글로, 아이들이 바로 이야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군더더기가 없는 글과 입말이 살아 있는 그림책입니다. 이야기와 상관없는 배경묘사가 없어서 아이들이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그림은 굉장히 자유롭고 정감있어 보입니다.

각 장면을 나타내는 색감이 돋보이고, 군데군데 볼거리가 있어 그림책을 보는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천자문책을 흉내낸 튼튼한 책표지와 질감 좋은 속지도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듭니다.

아이들은 똥벼락에 묻힌 김부자네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지막 장면을 잘 보세요.



한반도에 불고있는 노풍! 지역풍을 누를 수 있을 것인가?

이인희 · 본회 보육정책위원

한반도에 노풍이 불고 있다.

지난 3월 16일 민주당 대선 후보 광주 경선 이후, 노무현 바람은 네티즌은 물론, 현실 정치에서도 대선론 이인제를 중도 하차시키고,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며, 그 실재를 확인시켰다.

해마다 선거 때만 되면, 예외 없이 색깔론과 지역주의가 그 어떤 정책이나 능력의 우월성도 단칼에 베어버렸었다. 다행히 국민선거인단이 참여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는 색깔론과 지역주의가 그 대단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노풍이 대선에서도 망국적인 지역주의와 색깔론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인가는 예단하기 어렵다. 한국의 정치 현실이 철저히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고, 정계 개편의 움직임 속에서도 중부권 연합론 등 역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 설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그럼에도 예년과는 다른 기류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노무현 캠프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것이다. 노동계와 친근(?)하다는 이유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던 재계에서조차 노무현 진영에 모여들고 있다.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들 비리 연루설 등 각종 게이트로 집권당 후보인 노 후보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음에도, 지지율이 이회창 후보를 앞서고 있다.

그러나, 신민주대연합론과 지역화합론을 내건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변화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3김이라는 현실장벽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의문스럽다.

영남의 표를 의식하여, 부산 등에서 6월 지자체 선거를 승리하기 위해, 3당 합당의 주역인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그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드세다.

YS와 DJ를 대선 때까지 함께 끌고 가려는 노 후보에게, 낡은 정치를 상징하는 '3김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있는 20-40대의 변화에 대한 열망과, 3김정치의 중심인 DJ와 YS와의 협력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현실 사이에서 딜레마로 작용될 수 있는 것이다.

현실 정치에 대한 변화욕구가 노풍이 되어, 취약한 정치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누르고 지역화합과 개혁이라는 우리 정치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에 도달할 수 있을지... 지켜 볼 일이다.

지자체 선거와 대선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정치에 환멸을 느낀다며 무관심으로 일관할지, 냉소적인 시각을 거두고,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대변자를 뽑을지... 우리의 삶의 질은 결국 우리 손에 달려 있다.

보육교사들의 카페에 놀러 오세요.

편집부

커뮤니티가 활발해지면서 여기 저기 우리 보육교사들의 방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
커뮤니티를 주로 하는 사이트에 가서 '보육' 또는 '어린이집'으로 카페 검색을 하면 보육교사들이 모여 있는 곳이 많이 눈에 띕니다.

힘들고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잠시 책상에 앉아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여기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뒤지다 보면 보육교사들을 위한 카페가 있기는 합니다. 가장 먼저 들려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우리 홈페이지의 '보육교사들의 수다방' <http://kdta.or.kr/open/suda.php> 이지---요!

"보육교사가 되고픈 사람들과 함께" >> <http://cafe.daum.net/booug>

다음에 있는 보육교사, 예비보육교사들의 카페입니다.

다음에 있는 보육 관계된 카페 중 가장 많은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어요.

"보육교사가 되고픈 사람들과 함께" 는 이름 그대로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해 공부하는 사람과 현재 보육교사인 사람들이 보육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나누는 것입니다.

보육교사에 관한 공부를 하느라 힘들어하는 예비보육교사에게 선배들이 경험담이나 위로의 말을 들려주기도 하고, 또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에서의 경험들을 나누기도 합니다.

별들의 이야기방 >> <http://cafe.daum.net/starofstory> *

역시 다음에 있는 보육교사들의 카페입니다.

보육활동에 필요한 교육자료도 나누고 보육교사들의 어려움에 대한 하소연도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구인 구직방도 있네요.

그 외의 다음에 있는 보육교사 카페 *

어린이집 교사모임 >> <http://cafe.daum.net/BABYLOVE>

아이들의 집 >> <http://cafe.daum.net/izim2001>

어린이집 교사들의 모임 >> <http://cafe.daum.net/aiteacher>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 예비교사를 위한 6월의 강좌안내 -

대 상: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

교육비: 각 강좌당 10,000원 /

사전입금: 한빛은행 817-366200-02-001 이윤경

접수: 2002년 4월 15일- 6월 7일 /

전화신청: 02-2271-1548 담당자: 이강선주

인터넷신청: lsj29@jinbo.net으로 신청강좌명/이름/주소/전화연락처/입금자명을 명기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입금 확인 선착순으로 접수됩니다.

〈1강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흐름/보육교사의 역할과 자세〉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지 10년을 넘긴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지난 흐름을 살펴보고, 보육정책의 방향이 실제 보육현장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알아보고, 보육교사의 역할과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 강 사: 이윤경 (한국보육교사회 공동대표)

■ 일 시: 2002년 6월 11일 오전강의 10시-12시 / 오후강의 2시-4시

■ 장 소: 오전강의 전진상 교육관(진실)
오후강의 전진상 교육관(강당)

☞ 전진상 교육관 찾아오시는 길

지마길 4호선: 명동역 8번 출구로 나와 크라운베이커리 골목으로 직진, 김선영 미용실이 있는 골목으로 좌회전하여 10m 정도 걸어오면 계성여고 옆에 전진상 교육관이 있습니다.
(문의전화: 02-2271-1548)

〈2강 우리 옛 노래와 놀이〉

우리 할머니·할아버지가 어릴 적 즐겨 부르고 놀았던 신명나는 우리 옛노래와 놀이를 배워봅니다. 어렵고, 진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우리 민족의 전래동요와 놀이가 갖는 교육적 의의를 몸으로 직접 체험하며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강사: 최은아 (아이들과 함께 풍물을 이어가는 사람들 풍물캐비 대표)

■ 일시: 2002년 6월 18일 오전강의 10시-12시/ 오후강의 2시-4시

■ 장소: 서울시보육정보센터

☞ 서울시보육정보센터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하차하여 10번 출구로 나오신 후, 상업동기소 방향으로 150m 정도 올라오면, 오른쪽에 보육정보센터 (3,4층)가 있습니다.

2002년 한국보육교사회 인천지역 여름연수

"옛날 아이들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어떤 놀이를 하며 놀았을까?"

■ 일시: 2002년 7월 20일(토) 오전 10시 ~ 오후 3시

■ 장소: 부평문화원(인천지하철 부평시장역 하차 2분 거리)

■ 강사: 권해문('가자가자 감나무 동무동무 씨동무' 저자, 보리출판사 기획위원, 어린이도서연구회 연구위원, 안동대 민속학 강사)

■ 주최: 한국보육교사회 인천지부

■ 참가비: 3만원(자료집과 중식 제공)

■ 신청방법: 농협 120-02-019753 고정미로 입금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선착순 25명이므로 빨리 신청하십시오.

■ 연락처: 011-9030-4188 (고정미)

세종대입 홈페이지 > <http://scale.daeln.net/BABYLOVE>

국립중앙도서관 > <http://scale.daeln.net/2001>

세종대입 교사들의 모임 > <http://scale.daeln.net/teacher>

현장연구지원사업 선정안내

2002년 한국보육교사회 현장연구사전지원에 부산지부 그림책소모임(어린이 그림책 연구·제작 및 다양한 활용) 경기지부 강영신(천연염색)이 선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소모임 30만원, 개인 10만원의 연구지원비가 전달됩니다.

부산지부 그림책소모임(어린이 그림책 연구·제작 및 다양한 활용)은 그동안 그림책 연구는 교사들 사이에서 많이 이루어져왔지만 그림책 제작과 활용은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제작 및 활용에 비중을 둔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연구계획서에 활동의 목적과 활동내용, 기대효과 추진일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내실 있는 준비가 돋보입니다.

경기지부 강영신 선생님의(천연염색)은 연구주제에 따른 실행계획이 구체적이며, 아외나들이로부터 얻은 재료로 천연염색을 하여 아이들의 물리적 환경구성과 아동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교구(놀이감)에 반영시킨다는 것은 좋은 착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년동안 열심히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정을 위해서 서은희(전 한국보육교사회 공동대표)님과 최순옥(전 한국보육교사회 사무국장, 교육부장)님이 선정위원으로 수고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정기준은 절대평가 총점 18점 중 9점 이상의 연구계획서 기준으로 지부당 1건을 원칙으로 상대평가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기준은 연구주제에 따른 자기 완결성 9점, 주제의 참신성 3점, 연구결과의 현장 활용성 3점, 소모임 가산점 3점으로 선정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각 지부에서 현장연구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숲길 걸으며 자연과 역사 배워요

문화유적 등 볼거리가 많은 유명 산의 2, 3km 구간을 2, 3시간 정도 걸으며 '숲 해설가'로부터 숲과 산에 얽힌 이야기 등을 듣는 것이다.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일시: 매월 격주 일요일(11월 말)

장소: 남산, 관악산, 아차산, 청계산, 대모산 등

일정과 준비물: 남산 관악산 아차산 청계산 대모산에서는 매달 첫째 셋째주 일요일에, 안왕산 수락산 서오릉 안산에서는 매달 둘째 넷째주 일요일에 이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그러나 참여인원이 50~80명으로 제한되어 해당 구청 공원녹지과 등에 예약해야 한다. 간식과 음료 등은 각자가 준비해야 한다.

교통안전 교육 '재미있고 실감나게'

어린이들에게 흥미와 체험 위주의 교통안전 무료교육을 실시한다.

교사당 10명씩 어린이를 맡아 실외체험(40분)과 실내교육(20분)을 재미있게 진행한다. 실외체험에선 4백m 트랙으로 된 1천8백평의 도로 모형에 실제와 똑같이 설치된 터널,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교통시설물을 돌며 ▶횡단보도 바르게 건너기▶자동차 사고 예방법 등을 배운다. 어린이용 2인승 모터를 타고 스스로 교통사고를 내보며 사고원인과 예방법을 깨닫도록 하는 '모터카 사고 체험'이 가장 인기가 높다.

일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토, 일요일 제외)

문의: 02-3472-6880

주최: 양재동 어린이 교통안전 실습교육장

발달장애 영유아의 심리치료 기술과 사례(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공동주최)

일시: 2002년 6월 8, 15일(토) 매주 토요일 오전 9:00-오후 6:00 2주

대상: 보육시설 종사자 및 학부모

장소: 북사골문화센터 5층 세미나실

강사: 김광웅 교수(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외 다수

참가비: 회원 50,000원(국민은행 841-01-0069-711 최세민)

※ 참석자는 참석 전 필히 전화로 접수하신 후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입금: 국민은행 285-01-0063-671 예금주: 부천시 보육정보센터

문의: 부천시 보육정보센터 ☎ 032-322-8686 내선1번

유아를 위한 안전교육

일시: 2002년 6월 29일(토) 오전 10:00-오후 5:00

대상: 보육시설 종사자

장소: 북사골문화센터 5층 세미나실

강사: 황옥경 교수(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외 2인

참가비: 회원 무료 / 비회원 10,000원(점심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참석자는 참석 전 필히 전화로 접수하신 후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입금: 국민은행 285-01-0063-671 예금주: 부천시 보육정보센터

문의: 부천시 보육정보센터 ☎ 032-322-8686 내선1번

<강좌> 보육 전문인의 자세

서울특별시보육정보센터에서는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변화하는 시대에 적합한 보육전문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긍정적인 마인드와 자세를 내용으로 한 '보육전문인의 자세'라는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02년 06월 29일(수요일) 14:00-17:00

장소: 서울시 보육정보센터 교육실

대상: 보육시설 종사자 70명

강사: 원명순 회장(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캐나다 어린이 그림책 전시회

주한 캐나다대사관과 공동으로 기획한 <캐나다 어린이 그림책 전시회>에서는 캐나다 어린이 서적 센터가 지난 30여 년 간 가장 좋은 책으로 선정한 캐나다 영어 그림책 200여권, 불어 그림책, 한국어로 번역된 캐나다 어린이 그림책 100여권 등 총 300여권의 그림책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전시된다. 전시자료 중에는 캐나다 어린이 그림책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빨강머리 앤'의 영문판 전집을 비롯하여 3세에서 13세 어린이들이 영어와 한국어로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림책들이 소개되어 있고, 어린이들과 선생님, 부모가 함께 참가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추진된다. 기타 자세한 정보와 참가신청은 주한 캐나다대사관 웹사이트 www.korea.gc.ca/children를 참고하면 된다.

일시: 5. 1(수)~5. 20(월)

장소: 국립중앙도서관

문의: 590-0581

중앙소식

- 3월 8일 이윤경 공동대표는 KBS제1라디오 아침시사프로그램에서 정부의 보육종합대책에 대한 한국보육교사회의 논평과 문제점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 3월 10일 세계여성의 날 기념 여성대회가 대학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회에서는 보육교사처우개선에 관한 서명전과 보육교사처우개선을 알리는 공연을 했습니다.
- 3월 11일 관악지역의 바람직한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모임 기획회의에 이경녀 사무국장이 참석했습니다.
- 3월 11일 이윤경 공동대표는 YTN에서 보육대책에 대한 문제점과 공공성 확보방안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 3월 13일 이윤경 공동대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추진연대 회의에 참석하여 가정보육모 도입에 대한 문제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보육관련단체대표들과 복지부 사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 3월 16일 이윤경 공동대표가 오마이뉴스에서 정부 보육대책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 3월 16일 제1차 운영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조직과 재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 3월 18일 이윤경 공동대표가 대구 문화방송 라디오의 오전 시사프로그램에서 정부의 보육종합대책에 대한 한국보육교사회의 논평과 문제점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 3월 19일 관악지역 보육정책 개발 간담회에 이경녀 사무국장이 발제자로 참석했습니다.
- 3월 21일 일본의 보육단체인 '전국보육연합회'의 일꾼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전국보육연합회'는 일본의 보육관계자, 보육사, 학부모, 연구자 등이 모여 만든 민간단체로 정책개선과 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이날 통역해 주신 정현경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3월 26일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 보좌관과 여성위원회 위원장이 본회를 방문하여 이윤경 공동대표와 지방선거와 보육정책 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나누었습니다.
- 3월 28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정부 보육추가예산지원관련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여 가정보육모제 도입 철회, 공공성 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 등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 3월 28일 공동육아교사협의회에서 주최하는 교사교육에서 이윤경 공동대표가 보육정책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3월 28일 관악지역의 바람직한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모임 기획회의에 이경녀 사무국장이 참석했습니다.
- 4월 9일 "여성의정치세력화를위한민주연대"에서 주최한 지방선거예비 후보자 교육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지방선거와 보육>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습니다.
- 4월 12일 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날은 보육사업에 관한 정책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4월 16일 교육센터에서는 예비교사를 위한 교육강좌를 실시했습니다.

"유아의 관점에서 본 놀이의 이해"를 주제로 놀이에 대한 기본 이해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

- 행되었습니다. 강의를 해 주신 정은경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4월 18일 어린이집의 아동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건강교사모임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경인지역으로 확대하여 모두 13개의 어린이집에서 건강관리 활동을 진행합니다.
- 자세한 활동보고는 추후 진행되는 대로 보고하겠습니다.
- 4월 12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연석회의에서 이윤경 공동대표가 보육정책에 대해 강의하였습니다.
- 4월 13일 복지위원인 고진부의원실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대한 본회의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 4월 15일 국회 복지위원회 소속 각 의원들에게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대한 본회의 의견을 공문으로 전달하였습니다.
- 4월 17일 여성부에서 주최한 보육정책 자문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 4월 20일 여연 복지위원회 회의와 가족분과 세미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복지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4월 20일 관악지역의 바람직한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부모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정부의 보육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와 관악지역의 보육조례 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본 회에서는 이경녀 사무국장이 참석했습니다.
- 4월 20일 교육센터에서 "유아의 관점에서 본 놀이의 이해" 교육강좌가 있었습니다. 예정인

- 원보다 열 명이 넘게 참여하는 열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의 놀이에 대해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4월 20일 한국보육교사회의 교육철학을 재정리하는 "교육위원회"가 구성되어 첫모임을 갖고 앞으로의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우리 회의 전신인 지역사회타아소연합회의 교육연구부 활동을 하였던 분들과 전 교육부장님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교육위원으로 활동하여주시길 분들은 서은희님, 남명자님, 조선경님, 이현경님, 최순옥님, 오윤정님입니다.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 4월 24일 정책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호주의 보육제도에 대한 스터디와 한국의 장기적 보육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4월 29일 한국여성개발원 주최로 열린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샵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보육예산 확보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한국보육교사회의와 보육교사들의 활동일지

- 1월31일 - 복지부의 2002년 보육시설종사자 급여기준 발표에 대한 논평과 보육교사 처우개선 요구를 내용으로 성명서 발표
- 2월6일 - 제1차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보육교사 힘 모으기 토론회



장소: 전진상 교육관(명동) 참석자: 약 130여명

- 2월 28일까지 1차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서명작업 계획
- 활동진행을 위해 후원금 모금을 함께 진행하기로 함.
- 2월 8일 - 일간지 및 유아잡지에 토론회 및 서명작업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 월간유아, 꼬망새 3월호 기사 보도
- 2월 18일 - 보육교사 힘 모으기 행동지침 발표
- 인터넷 항의 글 올리기/ 다른 보육교사들에게 서명참여 전화연락하기 등
- 3월 6일 - 정부의 보육종합대책 발표에 대한 한국보육교사회의 입장을 보도자료로 배포
- 3월 7일 - 힘 모으기 2차 토론회
- 서명을 활성화하고 시민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거리서명전 진행하기로 결정
- 구별모임을 진행하기로 결정
- 3월 10일 -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에 서명전 및 행진 진행
- "보육예산 확보와 보육교사 처우개선 요구"
- 3월 12일 - 인천지역 보육교사 모임 진행
- 3월 14일 - 정부 보육대책에 대한 시민단체 기자회견 및 피켓시위 진행
- 보육의 공공성 훼손하는 보육료 규제 완화 철회와 보육의 질 하락시키는 가정보육모제 도입 철회를 요구
- 아동복지지원 확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확보를 요구하기로 하고 국민서명전을 진행하기로 함.
- 기자회견 참석 단체: 공동육아연구원, 전국 YMCA연맹, 참여연대, 한국보육교사회, 한

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의

- 3월 15일 - 서울 서부지역 보육교사 모임 진행
- 3월 19일 - 인터넷 서명게시판 및 항의메일 보내기 게시판 운영 시작
- 3월 20일 - 서울 중부지역 보육교사 모임 진행
- 3월 23일 - 거리서명전 서울 영등포역 앞
- 4월 4일 - 거리서명전 안산 안산역 앞
- 4월 5일 - 거리서명전 광주 첨단 호수공원
- 4월 11일 - 가정보육모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한국보육교사회 입장 발표
- 4월 13일 - 거리서명전 부산 서면 동보서적 앞 / 인천 부평 문화의 거리
- 4월 14일 - 거리서명전 서울 어린이대공원 정문 앞
- 4월 19일 - 거리서명전 안산 안산역 앞
- 4월 20일 - 거리서명전 부천 부천역 북부광장
- 4월 25일 - 보고회
- 4월 25일 복지부장관면담을 요청하는 공문 발송

지부 소식

서울지부

- 매월 월모임을 통해 교육주제를 토론하고 있습니다. 3월엔 양성평등교육을 주제로 토론하였으며, 4월엔 혼합연령보육을 주제로 토론하였습니다. 매월 토론 내용은 서울지부 소식지 "야 찾았다"를 통해 발표합니다.
- 3월 21일(목) 8시 사무실에서 신입회원교육이 있었습니다.

- 3월 23일 (토) 4시 영등포역 앞에서 보육예산 확대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거리 서명전을 실시했습니다.
- 3월 30일 (토) 4시 어깨동무어린이집에서 제1회 서울지부 월모임이 있었습니다. 월모임 내용은 현장소식을 참고하세요.
- 4월 2일 (화) 5시 정기 운영위 모임이 있었습니다.
- 4월 27일 (토) 4시 이화어린이집에서 4월 월모임이 있었습니다. 박장애 선생님을 모시고 보육교사의 정신건강을 위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주제로 자신감 키우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 4월 13일 오감살리기 미술소모임이 봉봉어린이집에서 있었습니다.
- 서울지부에서는 2002년 여름연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7월 초로 계획하고 있으며, 5월2주부터 여름연수 준비팀이 가동될 예정입니다.

인천지부

- 3월 회원의 날이 있었습니다. 민중가요도 배우고 회원 생일잔치도 있었습니다.
- 인천지부에 전통교육소모임이 생겼습니다. 이름은 '마을 모임'입니다. 매월 1회 모여서 전래 노래와 전통놀이 등을 공부합니다.
- 4월 26일~ 27일 신입회원 교육이 있었습니다. 보육교사회에 대해 공부도 하고 중앙 사무국을 방문하여 이윤경 대표님과 즐거운 시간도 가졌습니다.
- 5월 18일에는 '스승의 날' 자축연 및 신입회원

인준식' 이 있습니다.

경기지부

- 수원지회는 월례모임을 통해 교육주제발표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달의 주제발표를 준비한 회원들의 내용을 함께 듣고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4월엔 전경숙선생님이 준비한 과학의 원리를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발표가 있었습니다.
- 4월 4일과 19일에는 안산역 앞에서 안산여성노동자회와 함께 거리서명전을 실시했습니다.
- 4월 20일 부천역 앞에서 보육예산 확대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거리 서명전을 실시했습니다.
- 4월 21일 회원의 날이 있었습니다. 전달래 농장에서 고기도 구워먹고, 씨감자 심기도 하고, 보육교사에 대해 토론도 했습니다. 6월에는 우리가 심은 감자가 잘 자랐는지를 보기 위해 다시 전달래 농장에서 모임을 할 예정입니다.
- 5월 4일 평동어린이집과 경기지부가 함께 한 어린이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행사의 자세한 내용은 우리 회 홈페이지 경기지부 바깥방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전남지부

- 교육부주관으로 월례회를 통해 "다시 생각하는 공동체교육"을 주제로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내용은 우리 회 홈페이지 회원목소리 광주지부방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4월 월례회 함께 배워보는 손유희와 기계조를

진행하였습니다.

- 영아전담시설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영아교사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 어르는 소리, 전래놀이, 영아의 위생과 건강에 관한 내용이다루어질 예정입니다.
- 3월 31일 월모임에서는 무등산 등반을 했습니다.
- 광주는 4월 5일 광주 첨단에 있는 호수 공원에서 서명전을 펼쳤습니다. 끝날 때쯤 바람이 세게 불어서 조금 출진 했지만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무엇보다 회원들 남편분들 또한 열성적으로 서명전을 도왔답니다.
- 4월 10일 보육정책위가 시청여성정책과 보육업무담당자와 면담을 하였습니다.

부산지부

- 3월 10일 민주공원에서 3.8여성의 날 행사 '부산여성노동자대회'에 공동참여를 하여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으로 꽃봉오리 예술단 공연을 했습니다.
- 교사재교육이 있었습니다.
3월 29일(금)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5층 교육장 오후 8시부터 "인형의 의미와 인형만들기"라는 주제로 교육부에서 마련한 회원교육
4월 30일(화)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5층 교육장 오후 8시부터
"체질에 따른 어린이 한방건강 이해" -청년한의사회 백두한의원원장
- 교육부 주관으로 교사들의 부산지부 소식을 통해 교육관, 아동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회원들 개개인이 생각하는 교육관, 아동관을 공유하고 생각하는 자리입니다.

- 교육부 모임에서 교육부원들이 우리 회가 공표한 "어린이권리선언문"의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02 여름연수를 7월 말 8월초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 4월 19일-20일 2002년도 신입회원교육이 있었습니다. 신입회원 8명이 톤튼이 어린이집에서 양 이불간 철거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람과 사람들

축하합니다

- 광주전남지부의 이혜숙 선생님이 3월 23일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 광주전남지부의 이준미 선생님이 4월 27일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행복하시고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 대구의 정혜정 선생님이 4월 26일에 예쁜 아들을 낳았습니다.
대구에는 임신한 회원들이 많아서 곧 출산 소식이 줄줄이 들려 오겠네요. 혜정 생의 아이가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길 바라며 다른 분들도 무사히 출산하기를 기원합니다.

봄은 이사의 계절....

- 경기지부의 고영미, 전정숙 선생님, 광주전남의 김영금, 박미영 선생님이 이사하셨습니다. 이사에 관한 에피소드를 소개하자면 고영미 선생님이 없는 돈에 큰 맘 먹고 포장이사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사 당일날 돈금 없이 나

- 타난 친정아버지가 이삿짐을 꾸는 아저씨들에게 집이 더러우니 집주인이 오면 청소하고 짐 풀게 그냥 가라고 했답니다. 아저씨들은 이게 웬 횡재냐 싶어 부러나게 돌아가고 저녁에 새 집에 들어온 영미생 으---아---악! 그리하여 돈은 돈대로 쓰고 두 주 동안 밤이면 밤마다 짐 풀었답니다. 아직도 풀 짐이 남았대나요? 어버이날도 다가오는데 남아주신 아버지를 원망할 수도 없고... 썩-입니다.
- 광주전남의 편집부장인 박미영 선생님이 자연분만으로 예쁜 아들을 낳았습니다. 4월초에 배가 산만해서도 서명전에 다니고 소식지 만든다고 바빠 다니더니 예상보다 빨리 나왔네요. 엄마와 아이 모두 건강하길 기원합니다.
- 인천의 이연순 선생님의 집들이가 있었습니다. 하얀 나무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당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남편분이 손님으로 놀러온 아이들과 롤러블레이드 타며 노는 모습을 보니 천생인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순생! 행복하세요.
- 인천에서는 하마생네, 김원희 생네, 이인희 생네, 최은하 생네 식구들이 모여 텃밭도 매고 삼겹살도 구워먹고 즐거운 봄소풍을 다녀왔답니다. 부럽네요.

휴직했습니다.

- 광주전남의 이정미 선생님이 도담도담을 휴직했습니다. 휴직한 동안 뱃속의 아이를 잘 키워 무사히 출산하고 건강하게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1·2월간 본회 중앙사무국에서 자원봉사를 해 주시고 3월부터 반상근 근무를 하시는 이희경 선생님께서 5월로 그만두십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선생님이 되시고자 하는 일에 기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회비를 내셨습니다. (02년 4월말 기준입니다.)

(서울지부) 3월 완납

(인천지부) 3월 완납

(경기지부) 3월 일부

(광주지부) 2월 완납

(부산지부) 2월 완납

(평생회원)

최순옥 4,5차 10만원, 이기원 100만원

(회원회비)

서은희 4만원, 하미선 1만원

(자료회원)

양이만, 이종신, 서미연, 만리어린이집,

부산대학교육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은수미 2만원, 김희자 2만원, 관악사회복지2

만원, 여세연 8만원, 이상옥 5만원

후원계 후원 - 이영화, 이정녀, 서은희, 서정은,

임남희, 이기원, 최순옥, 강영신, 이윤경

본외 3·4월 월동일지

3월	7일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보육교사 힘 모으기 2차 토론회
	8일	2002년 겨울수련회 준비팀 회의
	10일	3.8 여성대회
	11일	관악지역 보육모임 기획회의
	12일	집행위
	14일	보육의 공공성확대와 보육료 자율화 저지를 위한 여성·시민단체 공동기자 회견 및 캠페인
	16일	제1차 운영위 회의
	19일	관악지역보육정책 간담회
	21일	일본의 전국보육연합회와의 간담회
	23일	보육예산 두 배 올리기와 보육교사 처우개선 서울 서명전
	27일	집행위
4월	4일	보육예산 두 배 올리기와 보육교사 처우개선 안산 서명전
	5일	보육예산 두 배 올리기와 보육교사 처우개선 광주 서명전
	10일	집행위
	12일	여연 사무국장 연석회의
	13일	보육예산 두 배 올리기와 보육교사 처우개선 인천, 부산 서명전
	14일	보육예산 두 배 올리기와 보육교사 처우개선 서울 서명전
	16일	교육센터 강좌
	18일	건강교사모임
	19일	보육예산 두 배 올리기와 보육교사 처우개선 안산 서명전
	20일	교육위원회 1차 회의
		교육센터 강좌
		보육예산 두 배 올리기와 보육교사 처우개선 부천 서명전
	23일	집행위
	25일	보육예산 두 배 올리기와 보육교사 처우개선 서명운동 결과 보고회
	27일	인천지부 신입회원 중앙 방문

편집부에서

해가 바뀐 지 얼마 안된 듯 한데 한참 달려오다 보니 벌써 5월입니다.

특히 3,4월은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보육교사들이 열심히 뛰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들의 노력이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희망으로 오늘도 힘차게 달려볼랍니다. 물론 여러 분과 같이요.

집필진이 바뀝니다. 그 동안 세상 읽기를 집필해 주신 박상희 선생님, 사이버 정보망의 임미란 선생님, 영아들과의 하루의 이정미 선생님이 개인적인 사정 등의 이유로 활동을 정리하십니다. 우리네 아이들에 좋은 글을 주셔서 우리들의 시야를 넓혀주신 세 분의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호부터 세상 읽기는 본회 보육정책위원이신 이인희, 이선미, 황미혜 선생님이 집필해 주십니다.

국민은행 019-21-0952-190 이윤경으로 입금하시고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02-2275-8505)

| 이런 일을 합니다 |

연구하는 교사, 실천하는 교사, 발전하는 보육 한국보육교사회

- 보육프로그램, 보육정책/제도 연구, 개발
- 보육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제반 활동
-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교육 및 다양한 전문소모임 운영
- 국내보육관련 단체, 사회단체와의 다양한 연대활동
- 보육관련 국제교류활동
- 교사들의 현장연구 및 자주적 활동
- 격월간지 '우리네아이들', 보육관련 자료 발간
-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분회활동 및 보육관련 정보 제공
- 어린이문화, 어린이인권 보장을 위한 제반 활동

부설 한국보육정보연구소

- 보육관련 자료 및 책자 발간
- 보육종사자 교육
- 보육관련 연구 활동

부설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보육교사회/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3층

전화 02-2275-8505 / 전송 02-2275-8506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kdta.or.kr> / e-mail:kdta@chollian.net

한국보육정보연구소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3층

전화 02-2268-3954 / 전송 02-2275-8506 / wawbest@jinbo.net